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803.90 (-137.49)	898.43 (-21.49)		
↑ 금리 (국고채 9년)	↓ 환율 (원·달러)		
3.961 (+0.028)	1337.95 (-5.65)		

고금리 美 국채, 韓 금융시장 강타 7% 주담대·기업 부실 ‘총체적 난국’

올들어 국고채 금리 꾸준히 상승
4대은행 주담대금리 상단 7%선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한계 우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담이 커졌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5.30%를 웃돌았다. 지난 1일에는 장중한때 연 5.34%까지 올라서며 2002년 4월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가 4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데다, 주요국의 미 국채 수요마저 약화하면서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어 서다. 여기에 국채유가 변동성 확대로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을 더했다.

문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이날 오전 기준 4.371%를 기록했다. 국고채금리는 1월 초 3.387→3월 초 3.511%→6월 초 4.122%→9월 초 4.378%로 꾸준히 상승했다.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 상단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4.79~7.00%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상단이 연 7%선까지 올라서면서 고금리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 역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금리률 0.25포인트(p) 올린 후에 점도표(Dot plot)를 통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내놨다. 5월 점도표에는 3.50%까지 가있지 않던 점도표가 8월 점도표에는 21개 중 6개가 3.50%에 찍혀 있었다. 시장에서는 연내 한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7일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5차 발사돼 우주로 향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5차 발사, 임무 성공 민관협력 ‘뉴스페이스’ 성큼

초소형군집위성·큐브위성 15기 탑재
한화에어로, 발사체 제작·조립 주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민관 협력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뜻하는 ‘뉴스페이스’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싣고 우주로 향했다. 특히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운용에 직접 참여해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민간의 우주개발 영역이 제작에서 발사 운용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누리호 1~3차 발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을 주관했다. 그러나 이번 4차 발사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역할을 넘겨받았으며, 이번 이번 5차 발사 운용에 참여하는 비율은 허용 범위 75% 이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사 현장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 23명이 발사통제센터(LCC) 콘솔 22개 가운데

20개에 참여했고, 이 중 18명이 콘솔을 직접 운용했다. 임무지휘센터와 발사대, 발사체 이송 안전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42명이 발사 운용에 참여했다. 이밖에 약 300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발사체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공급했다.

발사체 제작과 운용뿐 아니라 발사 인프라와 위성에도 민간 기술이 투입됐다. HD현대중공업은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의 설계·제작부터 운용을 맡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누리호 총조립과 1단 추진체 제작, 엔진 클러스터링 조립 등을 수행했다. 주담대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에는 LG 계열사의 카메라 모듈과 배터리팩, 파워 모듈, 자세제어 구동기, 위성통신 안테나 등도 활용됐다.

앞으로 우주개발 전반에서 민간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6차 발사부터 발사통제센터 콘솔 대부분을 운영하고, 전남 순천에 구축될 자체 제작시설에서 발사체 각 단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 체계를 확대한다.

/조민선 기자 msj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100조 시대 연다

오늘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매출 200조, 영업이익 105조 예상
AI 수요·HBM 출하 확대, 실적 견인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고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일 올해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200조원 안팎, 영업이익은 105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망에 부합할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새로 쓰게 된다. 3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6000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250조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 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적 상승세는 반도체 사업이 주도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시스

전망이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전사 이익을 견인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3분기 DS부문의 영업이익률이 70% 중반대에 달하고 메모리 사업의 경우 8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 또한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공급 확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범용 메모리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 ▲정부, 마다가스카르 등 인도양 도서국과 해양·식량안보 협력
- ▲與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개발 역량 한 단계 더 도약 증명”



- ▲오세훈,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정부 비판
- ▲추경호 시장 100일…“더 나은 대구 만드는데 역량 집중”

- ▲여야, 통일부 국감서 北 지뢰 매설 책임 추궁 한목소리 촉구
- ▲송미령 “농지조사 중국산 드론, 이번엔 알아…예산 문제”

삼성, 2나노 파운드리 생산 확대 글로벌 고객 수주 가능성 높인다

자체 칩 ‘엑시노스 2700’ 본격 양산
첨단공정 경험 기반 신규수주 모색
TSMC 공급 부족도 기회로 작용

삼성전자가 자체 칩 물량을 앞세워 2나노 파운드리 가동 확대에 나서고 있다. 자체 물량을 통해 양산 경험을 쌓는 가운데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의 가격 인상과 생산능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고객사 수주를 확대할 기회도 커지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 2700’ 양산을 위한 웨이퍼 투입을 시작했다. 엑시노스 27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를 적용한 첫 양산 제품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7 시리즈에 탑재될 전망이다.

생산 물량도 전작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엑시노스 2700 생산량은 엑시노스 2600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S27 시리즈에서 엑시노스 적용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자체 AP 물량 확대가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단공정은 초기 양산 과정에서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수율과 공정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엑시노스 27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생산량이 늘면 SF2P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고객사 확보에 필요한 양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세대 2나노 공정인 SF2의 수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SF2 수율이 6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SF2와 SF2P는 서로 다른 공정인 만큼 SF2P에서도 안정적인 수율과 양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환경도 삼성 파운드리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SMC는 제조비와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 1분기 2나노 웨이퍼 가격을 6~8% 추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객사에는 이미 10~20% 수준의 가격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격 인상에도 TSMC의 선단공정에는 주문이 몰리고 있다. 2나노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지만 추가 물량 확보가 쉽지 않

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팹리스 업체들은 제조비 부담과 공급망 다변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TSMC와 생산처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삼성전자는 2나노를 중심으로 고객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는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테슬라 AI5를 시작으로 후속 AI6까지 생산 물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쉘컴과도 2나노 공정을 활용한 AP 위탁 생산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생산 단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실제 양산 시점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여전히 크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순수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73%로 삼성전자(7%)를 크게 앞섰다. 삼성전자로서는 자체 물량을 기반으로 SF2P의 양산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사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선단공정에서는 수율과 양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사 수주에 중요하다”며 “TSMC의 생산능력이 빠듯한 상황이 삼성전자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나노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이형일(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태원(왼쪽 세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기업투자 가로막는 요인 적극 개선”

이 부총리, 경제6단체 대표 간담회
반도체 팹 공사 등 현장 애로 해소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름 전 경제사령탑을 맡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아 건의·애로 등을 수렴했다. 이어 이를 올해 8월과 10월 각각 발표한 1,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팹(FAB)을 설치할

때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한다. 또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등의 내용도 애로 해소방안에 포함됐다.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때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로봇과 신유형 로봇을 울타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재정부는, 오창과화산업단지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녹지 용도변경과 차세대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실증 지원 확대 등도 현장 건의를 반영한 사례로 제시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李 “녹색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필수 전제”

K-GX 전략 국민보고회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발표
“녹색시장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및 민간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보고회’를 열고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규정했다.

녹색대전환(GX)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경제·사회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바꾸는 산업·경제 전반의 전환을 뜻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 미래로, K-GX’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K-GX 전략과 민간의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날 유엔(UN)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K-GX를 추진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있다.

K-GX 전략은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3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계 협회·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3개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17개 경제계 협·단체가 참여하며 단장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간사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간협의체장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이 맡는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의 및 한화큐셀·포스코홀딩스·LG전자·삼성전자 등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참여 기업 및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녹색 기술과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 계획을 담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

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탄소 국경세를 비롯한 탄소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외국 기업들도 납품받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대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뿐 아니라 산업·경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노후 산업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 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연말까지 대출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1면 ‘고금리 美 국채, 韓 금융’서 계속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수준에 이를 수 있다. 기업의 이자 부담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가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7.6%로 2017년(11.8%)보다 15.8%p 상승했다. 상장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올해 기업은행의 한계기업 대출잔액은 2022년 말 23조984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7조5952억원으로 14조4968억원

(62.8%) 증가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출인 만큼,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만큼 연말까지 대출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뿐 아니라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4분기 메모리 가격 강세 전망… 실적 ‘청신호’

》1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서 계속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9월 PC용 D램 범용제품(DDR 4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6달러로 전월 대비 4% 상승하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도 30.6달러로 전월보다 0.4% 올랐다.

메모리 가격 강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이 전분기 대비 10~15%, 낸드 가격은 15~20% 상승

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업체들이 AI용 고부가 제품에 생산능력을 집중하면서 범용 제품의 공급 여력이 제한된 영향이다.

HBM도 실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6세대 HBM인 HBM4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제품 믹스 개선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3분기 HBM 비트그로스(비트기준 출하량 증가율)가 전 분기 대비 약 5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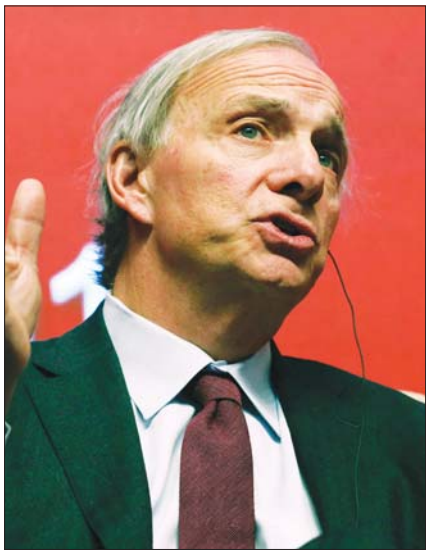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

365조달러 빚더미에 국채 매도까지… 세계 부채 ‘경고등’

OECD 이자비용 2조달러 넘어
미국 정부부채 40조달러 돌파
고령화·의무지출 재정부담 가중
국부펀드·연기금 미 국채 축소
각국 국채 매도 압력도 거세져

“현재 세계는 부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다, 교역은 둔화되고, 선진국 대부분은 고령화 리스크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연금, 의료 서비스 비용 등에 더 많은 나랏돈을 투입(무지출)해야 해 부채를 줄이기가 과거보다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빚 조달도 갈수록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외국계 투자은행 A임원)

‘금리의 역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 ‘빚의 무게’는 커지는 데, 부채를 늘리려는 ‘빚의 유혹’은 더 강해지고 있어서다. 박상현 IMF증권 연구원은 “향후 경제와 금융시장의 방향이 차입 비용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 /뉴시스

관리와 AI 기술이 이끄는 성장세 사이의 선순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현실화한 ‘빚 폭탄’

세계 각국은 ‘금리의 역습’에 허리가 휘 정도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부채는 365조달러(약 50경원)로 불어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총 2조달러(약

2689조원)를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19%로 2024년(3.24%)에 이어 2년 연속 3%를 초과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방 비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각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빚더미 위에 앉은 상황에서 채권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해 차입 비용이 급증한 점이 문제다.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 8월 처음으로 40조 달러(약 5경3700조원)를 넘었다. 올해 OECD 국가들은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약 2경4200조원)를 추가로 빌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2022년 금융시장에 대한란을 가져왔던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 사태 때보다도 금리가 높아 현재 이자 비용이 연 1100억파운드(약 200억원)에 달한다.

프랑스는 2024년 총선 이후 총리를 3명이나 맞이하는 정치 혼란을 겪었는데, 그 중 한 원인은 부채 비용에 따른 재정 압박이 있다.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달 연설에서 “정부 부채 이자를 부처로 취급해보면 화이트홀(영국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어 두 번째이고, 국방부·내무부·법무부를 합친 것보다도 큰 부처일

것”이라며 “정부 지출 10파운드 가운데 1 파운드를 이자에 쓰는 건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이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의지가 시장에 있을지, 선진국 정부들에 차입을 억제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으며 이에 올여름 이후 채권시장 매도(금리 급등)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분기 대비 0.87%포인트 오른 연 5.29%로 거래를 마쳤다. 분기 기준 1994년 1분기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연준이 예고 없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1994년은 ‘채권 대학살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국채 금리가 폭등했던 때인데, 채권 시장에 당시와 견줄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리 없이 벌어지는 세계 국채 전쟁

세계 경제가 빚의 굴레에서 안제쯤 자유로워질까. ‘침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답이 많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각국이 국채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채권 전쟁이 확대되면 채권 가격

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금리 상승의 강력한 기폭제가 된다.

2조3000억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은행투자관리청(NBIM)은 펀드의 운용지침을 정하는 노르웨이 재무부에 채권 투자에서 국채 비중을 현재 70%에서 50%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가장 비중이 큰 미 국채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약 2150억달러였던 미 국채 보유액 가운데 약 800억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는 미 국채 보유액을 2024년 말 290억유로에서 올해 1분기 말 46억유로로 줄였다.

오랜 기간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꼽히는 중국과 일본의 최근 미 국채 매도 상황도 국채 전쟁과 무관치 않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미 국채 보유국인 일본은 올해 들어 7월까지 128억달러를 팔아 1조1039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액도 6180억달러로 줄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저치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국산 오가노이드 평가기술, 첫 국제표준 확립

생명연, 실제 장기 유사도 백분율 산출
데이터·유전자 분석 전 과정 표준화

국내 연구진이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가 얼마나 실제 장기와 유사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국제표준 절차로 확립했다. 전 세계 오가노이드를 평가할 수 있는 ‘공동 잣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 정량 평가 기술이 처음으로 국제표준으로 확립된 성과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조현수 센터장과 디지털바이오연구센터 김대수 센터장 공동연구팀은 인간 만능줄기세포(hPSC) 유래 오가노이드와 실제 인체 장기와의 유사도를 백분율 점수로 산출하는 정량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표준 절차로 확립했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 구성부터 유전자 패널 선정, 유전자 데이터의 신뢰도 및 품질 관리, 유사

도 계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누구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정량적 품질평가의 표준 절차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화학적 기반 오가노이드 정성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 연구자와 제약회사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오가노이드의 완성도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신약 독성·효능 평가용 오가노이드의 품질관리, 세포치료제 개

발, 오가노이드 기반 시험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의 구조와 생리적 기능을 유사하게 재현한 3차원 세포집합체다. 인체에 직접 약물을 투여해 보지 않고도 신약의 효과나 부작용을 알아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 세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실제 장기와 비슷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었다. 기존에는 특정 장기의 분화 마커를 생화학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정성 평가’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연구실마다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방법과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장기 유사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번 생명연이 만든 평가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공식 기술시방서(ISO/TS 24932)로 최종 제정되어 8월 전 세계에 공식 발간됐다. ISO 표준문건인 만큼 전 세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 명칭은 ‘유전체 정보학·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의 유전자 발현 패턴 기반 유사도 산출 절차’이며, 조현수·김대수 센터장이 공동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metro

진안으로 GO! 음식으로 ONE!

진안고원푸드페스타

2026. 10. 24. 토 - 10. 25. 일 **진안공설운동장 일원**

10. 24. 토 세프라이브배틀

정호영 셰프 VS 박은영 셰프

10. 25. 일 고원 미식회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 셰프

10. 25. 일 고원 한입 쿠팡쇼

140만 인기 유튜버 최요남

놀GO! 먹GO!

- 전국 대학생 요리경연대회
- GO ONE 샌드위치 랩
- 시장 미션 빙고
- 색(色) 찾아 시장 한바퀴

• 주최

진안군

• 주관

진안군관광협의회

원가 한계에도 정부·국감 칼날… 옴짝달싹 못하는 식품업계

해태제과·웅진식품, 가격 인상 단행
업체 “자력으로 감내 어려운 수준”

환율 안정 등에 인상 명분 애매해져
국감서 식품·유통·외식 송곳 검증
주요 동종 업계, 가격 인상 관망세

국정감사와 정부 사정당국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추석 연휴 직후 밀어내기식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외식 업계가 극심한 눈치 싸움에 빠져들었다. 누적된 원가 부담을 견디다 못해 가격표를 수정하고 나섰지만, 국회의 엄포와 대통령 가격 관련 언급, 세무조사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외통수에 몰린 모양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이달 1일부터 오예스, 휴린불, 포키, 고함만두 등 25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7.8% 인상했다. 빠세, 허니버터칩 등 5개 브랜드 14개 품목은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중량을 줄이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적용했다. 웅진식품 역시 같은 날부터 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침햇살, 초록매실, 하늘보리 등 20여 개 품목 가격을 평균 7% 올렸다.

올해 초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력해 라면과 식용유 등 일부 제품 가격을 낮췄던 식품업계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업계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배경에는 한계치에 다다른 원가 부담이 있다. 주요 식품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

니라 환율, 인건비, 에너지 비용, 물류비 등이 복합적으로 올라 자력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원가 부담을 억누르며 인상 결정을 미뤘지만 올려야 할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가격 인상의 명분이 애매해진 시점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되찾았고,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기준 소맥(SRW) 평균 가격도 9월 한 달간 11.9% 하락하는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작 올리려는 타이밍에 지표가 안정되면서 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처럼 애매해진 명분 속에 가격 인상을 강행하러니 국회와 정부의 사정 칼날이 가로막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삼양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3건(과징금 총 1조 8000억 원대)에 모두 연루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여기에 상반기 마케팅 논란을 겪은 스타벅스(SCCK컴퍼니) 관련 이슈 등 식품·유통계를 향한 국회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어 있다.

외식업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육계 가격 하락에도 치킨값이 유지되는

상황을 직접 지적하며 점검을 예고했고,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진행 중이다. 치킨업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 당시 상승분을 본사가 떠안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종합 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당국의 시선은 냉담하다.

결국 식품·외식업계는 추가 가격 인상 카드를 선뜻 내밀지 못한 채 팽팽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가격을 올린 해태제과나 웅진식품과 달리 롯데 등 주요 동종 업체들은 선뜻 인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 역시 “올해는 대규모 원료 담합 제재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가격 언급까지 겹쳐 예년보다 국감을 앞둔 긴장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도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와 당국의 분위기를 주시하며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삼성DX 노조 사장 만나고, DS 노조는 국감·경찰 수사

DX, 노태문 사장 만나 처우 개선 논의
반도체 어려울 때 DX 기여도 인정해야

DS, 국감서 초기업 노조가 주도한
성과급 합의 형평성·방식 도마위

삼성전자DX 노조가 경영진과 직접 대화에 나선 반면 DS 중심 초기업노조는 위원장 논란이 국감과 경찰 수사로 번지면서 두 부분의 노사 분위기가 더욱 대비되고 있다. 내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DX의 보상 개선과 초기업노조의 운영 투명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전일 동행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대표들을 만나 보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6 테크 포럼’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DX 노조, 경영진과 내년 보상 개선 논의

DX 노조는 지난 5월 임금협약으로 불거진 보상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노사는 DS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DX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동행노조는 신임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경영진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손용호 동행노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 사장을 만나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동행노조는 반도체 업황이 어려울 때 스마트폰·TV·가전 등이 회사를 뒷받침한 만큼 DX의 기여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동행노조 운영국장은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회사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행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내년 공동교섭 참여도 추진한다. 다른 노조와 대화해 DX의 입장을 교섭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삼노와의 면담에서도 내년 보상 수준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삼노에 따르면 이호석 위원장은 약 40분간 노 사장과 만나 DX 보상안을 DS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권한을 DX 피플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기업노조, 국감 질타에 경찰 수사까지

DX 노조가 경영진과 보상 개선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감에서는 초기업노조가 주도한 성과급 합의의 형평성과 협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DS에 집중된 보상과 DX의 교섭 참여 문제를 비롯해 파업 예고로 회사를 압박했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이었다.

최 위원장은 DX의 타결금과 성과급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합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업을 전제로 협상한 것은 아니며 5~6개월간 교섭 끝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질 의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으로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에 집회용 조끼 계약을 맡긴 경위 등이 거론되자 최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삼갔다. 대신 내부 집행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 148.7억弗… ‘역대 최대’

산업부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액 역대 3위… 반도체·AI 등 유입

중동 정세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 ‘도착’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FDI 신고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0억 달러, 도착 금액은 30.6% 늘어난 148.7억 달러로 집계됐다.

도착 금액 기준으로는 3분기 누적 역대 1위 실적이다. 이미 신고된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음을 뜻한다. 신고 금액 역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견조한 성장으로,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부·장,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과 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로 외국인 자금이 활발히 흘러들었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가 185.2억 달러(+4.0%)를 기록하며 1분기 감소세(-19.8%)에서 플러스로 반등했다. 기업 지분 인수 및 합병을 위한 M&A형 투자 신고는 43.8억 달러로 53.1% 급증했다. M&A형 투자 도착은 69.8억 달러로 무려 126.0%나 뛰어올랐다.

업종별 신고 실적에서는 서비스업이 금융·보험(53.6억 달러)과 정보통신(24.3억 달러) 분야의 호조에 힘입어 142.1억 달러(+27.8%)를 기록한 반면, 제조업은 화공 및 전기·전자 분야의 감소 영향으로 57.2

억 달러(-34.5%)에 머물렀다.

김정에 투자유치과장은 “제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많이 감소했지만 기 진출해 있는 기업의 증액 투자는 증가했다”며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장비, 패키징 등 첨단산업 분야로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도착액도 전년대비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신고 기준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소·부·장 및 데이터센터 투자를 앞세워 전년 대비 35.1% 증가한 66.9억 달러를 기록하며 투자를 이끌었다.

산업부는 향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계기로 적극적인 국내외 IR 활동을 전개해 외부 유치 모멘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공정위, ‘44조 석유제품 담합’ 제재 착수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년간 담합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등 국민 생활 필수재인 석유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 절차에 올려졌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가 이어지던 시기 4년간 벌어진 이 담합 행위의 영향권에 든 매출액만 무려 44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석유류 판매 가격 담합 및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정유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 미국-이란 전쟁 직후가

지역 4년 동안 휘발유, 경유, 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핵심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석유류 판매가격(입금가)을 직접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 사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총 44조 1000억원(일평균 약 300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정보교환 담합(제9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8주간의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최종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한글을 배우면서 제 꿈도 더 커졌어요!”

처음 보는 글자를 읽는 게 재미있고,
쓸 수 있는 글자가 늘어나는 것도 신기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꼭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한글날 100주년,
한글은 이제 먼 나라 아이들의 꿈까지 키우며
세계로 그 쓰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도 K-금융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10월 9일은 한글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한글날입니다

*인도네시아 짜야찌아족은 2009년 한글을 고유 언어의 표기 문자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로 자신들의 말을 배우며,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 KB금융그룹**

北 지뢰 두고 정동영 “고의성 미확인” vs 野 “책임 물어야”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북한 고의성·책임 추궁 문제 쟁점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장관 “관객이 판단할 일” 선그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고의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 장관은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불의의 사고’ 혹은 ‘북한의 도발’인지 묻는 박종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 의도에 대해서 최종 발표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심기를 살펴야”라며 “우리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는데, 지뢰 지대에 청년 장병이 또 들어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아마 유엔군사령부도 그 의도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근본적인 해법은 남북의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의) 증오와 적대를 끝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에 100~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좋은 정치란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과 적대를 화해화 협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해 놓은 지뢰를 폭

파 방식으로 제거한 것을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앞마당에 와서 똥을 싸놓고 갔는데, (북한군이)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머저리 같은 대응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병사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왜 위험한 작전에 우리 장병들을 투입하나. 그걸 우리가 왜 하나”라며 “누가 또 다칠 수

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에 북한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이 심어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목적이 있나”라며 “지뢰라는 물건 자체에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군을 살상하려는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것이 위험한 말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심어놓은)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해야 하지만, 그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져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김여정 총무부장이 어제 바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말했다.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인데 그다음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남북의) 서로 주장이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선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할 때 창작자의

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하느냐. 역사 왜곡을 금지하기 위한 한계가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했으나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루며 정권 내부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받아들이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이 영화 출연 배우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의 시위를 두고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글을 쓴 것을 윤 의원이 지적하자 최 장관은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국감 ‘못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전 세계 웃음거리 전락” 여야 질타
선관위 “전면적인 쇄신 방안 마련”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눈 가리고 아웅’ ‘전 세계 웃음거리 전락’ 등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선관위,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며칠째인지 알고 있나. 124일째”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 특검 쪽에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재검표에 대해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행은 이에 “저희들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특검 쪽에서 협조를 구했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올림픽공원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위원장에게 선사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을)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박상용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면서 선관위의 분명한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당 권영진 의원은 선관위 채용비리 수사 대상 직원들의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한 변호사 비용 보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금 마주

한 위기는 그동안 누적돼 온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우리 위원회는 빠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세 분야로 나누어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경험과 시각에만 갇히지 않고 국회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학계의 비판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쇄신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재일동포 초청해 “한일관계 새로운 장”

민단 창단 80주년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만나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재일동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단 창단 80주년을 기념해 재일동포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한

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1946년 창단한 민단은 지난 80년간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고 우리말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며 한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선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민단은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계신다”며 “오랜 세월 여러 어려움과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왔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잘해주셨다.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14일 ‘가닥’

여당 내 반대 분위기 소강상태
김민석 “이제 청문회서 다룰 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잠정적으로 확정되면서, 여당 내 반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전날(6일)에 이어 당 강경파를 겨냥해 “개별적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게 좋다”면서 당내 메시지 단속에 나섰다.

중수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행안위에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되면 민주당이 밝힌 대로 오는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 불거졌다.

진영 내 반발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쳤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회를 받지 못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뒀고, 지난 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다.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반발 중이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복이후반 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검찰 개혁이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어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

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황현선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회 청문회의 가이드라인이 되서는 안 된다”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인사권 침해나 사심, 극단주의로 몰아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강경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 티비’에서 “과한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과 대열과 전선과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인사권’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강경파가 계속 개별적인 메시지를 낼 경우 당 차원의 조치를 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티’에서도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다룰 수 있다”며 “개별적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6일) 제가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며 “청문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문위원회에 전하고 당은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제는 장외공방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날 공개적으로 경고한 만큼, 다시 한 번 단속에 나선 셈이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영시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업계 ‘사후규제’ 불이익… 불량코인 상폐, 투자자 피해 키워

가상자산 제도화 현주소

① 제도적 공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어 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법인의 시장 참여 등 후속 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없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면서 거래대금도 급감했다. 가상자산시장의 현 주소를 짚어 본다. <편집자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지연’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초안을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세부 분류를 마련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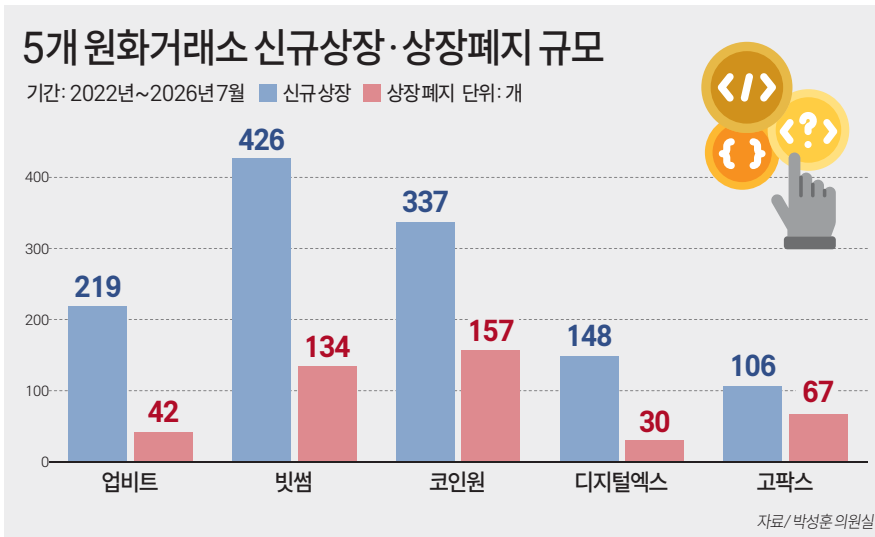
◆ ‘제도적 공백’ 지속…경쟁력 악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중요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어서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분류도 불명확해 규제 완화,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등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 따른 거래소 신고제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등록제 시행 ▲트래블룰 시행 등 수 차례의 ‘사후규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사후 규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업 추진이 불발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거래소들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보다 점유율 및 수수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으며, 전문투자자 법인과 일반법인까지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논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논의는 1년 넘도록 중단됐다.

국내에서는 실명계좌제 도입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된 반면, 해외에서는 전체 거래 대금의 약 70~80%를 법인 및 기관 투자자가 차지한다. 법인 및 기관 투자자는 자금 규모가 막대하고 중장기 투자 비중도 큰 만큼,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선호하는 이유다.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통화가치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송금 비용이 낮고 결제 편의성도 높아 기존 금융 체계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작년말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제도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이용자 보호·공시체계 마련 기반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지연

국내 거래소, 신규사업 투자 보다
점유율 및 수수료 경쟁에만 몰두
스테이블 코인 경쟁력도 뒤흔쳐

업계 “가상자산 경쟁력 강화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처리 시급”

지연되면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상장 경쟁’ 과열…명확한 기준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및 점유율 경쟁을 위해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을 경쟁적으로 상장하고, 상장에 앞선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불량 코인’을 단기간 내에 퇴출하는 ‘무더기 상장’을 지속하고 있어 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5개 원화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거래

소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상장한 알트코인은 1236개(거래소 간 중복 포함)다. 같은 기간 거래가 중단된 코인은 430개 종목이다. 신규 상장 건수 대비 폐지 건수는 34.8%에 달한다. 100개의 코인이 신규 상장되면 같은 기간 동안 35개의 코인이 퇴출되고 있는 것.

거래소들이 신규 알트코인 상장에 적극적인 것은 점유율 및 매출 경쟁 때문이다. 신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높고 투자관심도가 큰 만큼, 경쟁 거래소보다 빠른 상장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올해 신규 상장된 코인은 업비트가 72개로 가장 많았고, 빗썸이 62개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3개 거래소는 신규 상장 건수가 6~12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거래소들의 상장 경쟁으로 ‘불량 코인’이 대거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들은 상장에 앞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정을 점검하는데, 빠른 상장을 위한 ‘졸속 심사’가 계속되면서 불량 코인의 가

격 급락이나 상장 폐지로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 우선순위 ‘뒤틀린’…기약없는 입법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기본법 초안을 마련해야 할 금융당국도 고객정보 유출 등 다른 현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주도하는 여당은 오는 11월 법안소위 심사 및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 공청회 일정이 불발되면서 입법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법안의 세부 내용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6월 기본법 초안 발표 이후 법인의 시장 참여,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 지분율 등 안건을 논의했으나,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내용을 제외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의 핵심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발행 및 유통 체계에 대한 규율도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법은 당초 지난해 말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는데, 업계에서는 올해도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면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제도적 기반 마련이 늦어지면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달러값 주춤… 환율 1200원대로 떨어지나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000.0원 마감
美 국채금리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엔화 기록적 약세 원화값 상승 제한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연일 강세를 지속했던 달러화가 주춤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엔화의 기록적 약세와 해외투자 수요 등 원화값 하락 요인도 여전해 서다. 전문가들은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국면에 있는 만큼, 환율이 12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40.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보다 3.2원 내렸으며, 지난 9월 10일 이후 한달여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 기대감, 유로존 재정 우려 등으로 연일 강세를 지속했던 달러가 주춤하며 원화값을 끌어올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를 산정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장 마감 당시 달러인덱스는 101.85로 집계됐다. 직전일인 5일 거래에서는 달러인덱스가 장중 102.54까지 올라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프랑스발(隣) 유로존 재정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달러값 상승을 부추겼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유로존 재정우려가 완화하면서 미 국채 선호가 꺾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349%까지 올라 지난 2002년 4월 이후 24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6일에는 장중 5.248%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달러값이 주춤하면서 원화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원화와 동조성이 큰 엔화의 기록적 약세는 원화값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소다. 한국은 일본과 산업 및 수출구조가 비슷해 원화값이 지역 가축통화인 엔화를 따라 움직이는데,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엔화값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원화값도 저평가되고 있어 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의 달러·엔 환율 증가는 달러당 158.26엔을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64엔을 넘기며 40년 만에 최고(엔화값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7월 말과 비교해선 다소 하락했으나, 미·일 양국의 외환당국이 적극 개입에 나섰던 지난 8월 초의 156엔과 비교해선 여전히 엔화가 약세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엔화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뚜렷하며, 엔화값의 저평가 배경으로 꼽히는 미·일 중앙은행 간 기준금리차도 여전히 해 서다.

전문가들은 원화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국면에 있는 만큼 상승여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에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GDP 대비 20%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면서 “안정적인 수입 여건은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환율이 달러당 1200~145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환율로는 1280원을 제시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

저축은행, 고금리 유치전에도 수신 지지부진

전국 79곳, 1분기 정기예금 이자비용 약 6143억, 전년대비 26% 줄어 들어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막상 업권의 정기예금 이자비용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무브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수신 영업이 확대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정기예금 이자비용은 약 6143억원으로, 전년 동기(8321억원) 대비 26.2%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커졌다. 정기예금 이자비용은 지난해 1분기 8.3%, 2분기 6.7%, 3분기 0.2%, 4분기 9.2%씩 감소해 오다 올해 1분기 12.7%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정기예금 이자비용은 저축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고객 유치전을 벌이면 그만큼의 정기예금 이자비용은 커진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지난 2023년에도, 저축은행은 5~6% 수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자금 확보에 나섰다. 당시 정기예금 이자비용은 1조 3093억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예금금리 인상 기조와 예금 이자비용 확대 부담

이 엿박자를 낸 것. 업권은 금리 인상에도 이자 비용이 줄어든 것을 두고 영업력 약화 영향을 꼽는다. 1분기 금리를 인상하며 고객 유치전을 벌여도 그만큼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할 만큼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실제 최근 저축은행 수신 잔액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11월 100조원대를 기록하다 지난 2월 97조6864억원으로 줄었다. 3월과 4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잔 기준 100조원을 회복하고 있다.

예금 자산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엿박자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수신을 확대할 유인이 없는 대형사들이 고객 유치전에 나서지 않아 평균적인 정기예금 이자비용이 낮아졌다는 것.

다만, 저축은행권의 수신 경쟁은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만기 평균 금리는 3.93%다. 지난 2월 올해 들어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서더니 최근 4%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4%대가 넘어가는 정기예금 상품도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HB저축은행의 비대면 회전정기예금 상품은 최고 4.51% 금리를 제공한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

HD현대중공업 공동대표 체제 돌입 이상균 부회장, 그룹 조선사업 총괄

HD현대 사장단 인사

조민수·한주석·박찬혁 사장 승진
조선업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
DC용 엔진·SMR 등 신사업 박차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조민수
HD현대중공업 사장

HD현대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에게 그룹 조선사업 전반의 지휘를 맡기며 계열사 간 결속을 강화한다. 조선업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안전총괄 대표를 새로 내세우고 데이터센터용 엔진·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사업에도 힘을 싣는 인사다.

HD현대는 이상균 부회장을 조선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상호 등 조선 계열사의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회사별 대응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업무 조정 등을 맡는다. 데이터센터용 엔진발전과 SM

R 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인 조민수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안전총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조 신임 사장은 1966년생으로 입사 이후 줄곧 조선업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 전문가다.

이번 인사로 HD현대중공업은 이상균 총괄 부회장과 조민수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금석호 사장은 경영지원 총괄 사장 역할에 집중한다.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한주석 부사장과 HD현대사이트솔루션 박찬혁 부사장도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한 신임 사장은 1994년 HD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 입사해 33년간 선박용 엔진 설계와 연구개발(R&D), 생산, 영업 등을 거쳤다. 향후 HD현대중공업이 8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데이터센터용 발전 엔진 공장 증설과 HD현대마린엔진·HD현대엔진 간 시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박 신임 사장은 건설기계 생산·품질 분야 전문가로 유럽과 중국 등 해외법인장을 거쳐 글로벌생산본부장과 품질생산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9월 HD현대사이트솔루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룹의 핵심사업인 조선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에는 후속 임원 인사와 경영전략 회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metro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가운데)이 6일(현지 시각) 포스코아르헨티나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아르헨티나 리튬사업 속도낸다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

2033년 10만t 생산체제 구축 목표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생산능력을 5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현지 리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내 공정과 연계해 수산화리튬 생산체제를 갖추는 한편 추가 공장 건설을 추진해 오는 2033년까지 염수리튬 생산능력을 1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에서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총 9억5400만달러를 투자한 2공장 상공정은 연간 2만3000톤의 탄산리튬 생산능력을 갖췄다. 기존 1공장 2만5000톤을 더하면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능력은 연간 4만8000톤으로 늘어난다.

2공장에서 생산한 탄산리튬은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전남 울촌산업단지 하공정과 연계한다. 이를 연간 2만5000톤 규모의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

면 기존 1공장을 포함해 총 5만톤 규모의 염수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체제를 갖출게 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해발 4000m의 극한 환경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준공에 이르게 돼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생산과 수익으로 연결하고 국가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공장의 초기 정상 가동과 함께 3·4공장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각각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탄산리튬 생산능력을 확보해 오는 2033년 염수리튬 1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준공식 당일 살타·카타마르카 주정부와 3·4공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주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혜은 기자

LG전자, 올해 매출 70조·영업익 4조 돌파

3분기 매출 23.8조, 영업익 7818억
생활가전·전장 사업 안정적 수익

LG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익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이어간 가운데 TV 사업의 수익성 개선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3조8270억원, 영업이익 7818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13.5% 증가한 규모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71조3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55.9% 늘어난 4조346억원을 기록했다. LG전자의 3분기 누적 매출이 70조원을 넘고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전쟁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도 주력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데다 글로벌 사우스와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각각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와 B2B 영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캐시카우 역할을 이어갔다. TV 사업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다.

LG전자는 전사적인 원가구조 개선과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물류비와 재료비, 고정비 등의 상승 부담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사업별로 생활가전(HS) 사업은 프리미엄과 불륨존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갔다. 가전 구독과 온라인, B2B 사업 비중 확대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제조와 물류 등 운영 효율을 높이며 견조한 수익구조를 유지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사업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와 신형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늘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높이고 경쟁 비용을 효율화하면서 흑자 기조도 이어갔다. webOS 플랫폼 사업 역시 성장세를 지속했다.

전장(VS) 사업은 기존 수주잔고가 매출로 안정적으로 전환되며 성장세를 이

어갔다. 특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에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늘어나며 수익성이 개선돼 B2B 분야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냉난방공조(ES)사업은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다. 다만 신규 생산능력 확보와 신사업 인력 충원 등 투자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LG전자는 주력 사업에서 확보한 수익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과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외 생산거점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서울 양재에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하고 경남 창원에서도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양산 인프라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말 실적설명회를 열고 3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세부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S일렉트릭, 대만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포모사플라스틱그룹 JV 설립 계약

LS일렉트릭이 대만 최대 석유화학그룹인 포모사플라스틱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전력기기 공급 중심의 현지 사업을 전력 인프라 수주로 확대한다. 현지 생산 기반과 설계·조달·시공(EPC) 네트워크를 활용해 친환경 전력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 전력망 투자 수요에 대응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6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포모사플라스틱그룹 계열사인 아플라스틱, KHI와 대만 전력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합작법인 이름은 ‘남아나성(南亞樂星)’으로, LS일렉트릭이 50%, 난아플라스틱이 40%, KHI가 10%를 출자한다.

합작법인은 대만 전력사업 수주부터 설계와 기술 대응까지 현지에서 수행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의 전력기기 제조·설계 기술에 난아플라스틱의 생산 기반과 EPC 네트워크를 결합해 현지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

이번 계약은 양사가 지난해 3월 체결한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력기기 공급을 중심으로 이어온 협력을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엔지니어링과 전력 인프라 수주 사업으로 넓힌다.

현지 사업 기반을 제공하는 난아플라스틱은 석유화학과 전자소재·전자제품을



LS일렉트릭은 지난 6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대만 포모사플라스틱그룹 계열사인 대만 난아플라스틱, KHI와 대만 현지 전력사업 강화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LS일렉트릭

주력으로 하는 포모사플라스틱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최근 전력 솔루션 사업을 육성하면서 기존 배전 제품에서 초고압 송전 설비와 전력망 안정화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함께 출자하는 KHI는 포모사그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유망기술에 투자하고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자회사다. LS일렉트릭의 사업 경쟁력과 글로벌 전력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해 이번 합작법인에 투자했다.

합작법인이 공략할 대만 시장은 탄소 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50년까지 전체 전력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친환경 전력설비와 ESS, 디지털 기반 스마트 전력망 구축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로히트 프라사드 신임 CEO 선임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보스턴다이나믹스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하며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대화형 AI와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범용인공지능(AGI) 분야의 기술 리더인 로히트 프라사드(사진)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프라사드 CEO는 아마존에서 음성 기반 AI 플랫폼 알렉사 개발 초기부터 핵심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이후 알렉사 및 AGI 부문 수석부사장 겸 수석과학자로서 아마존의 노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총괄하는 등 AI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프라사드 CEO의 합류로 로보틱스와 AI의 융합을 가

속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에 첨단 AI를 결합해 지능형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과 상용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프라사드 CEO는 “첨단 AI와 로보틱스를 융합해 현실 세계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로보틱스의 적용 범위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피지컬 AI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전동화부터 수소까지”…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승부수

현대차·기아, ‘아헨 콜로키움’ 참가
EV·HEV·EREV 아우르는 xEV 전략
수소연료전지·배터리 기술 공개
SW·데이터 기반 차량 진화 제시
시장 변화 대응 동력원 다변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미래 핵심 동력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현대차·기아는 10월 5일(이하 현지시각)부터 7일까지 독일 아헨에서 열린 ‘아헨 콜로키움 2026’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핵심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기조연설과 기술 세션, 기술 전시 및 차량 시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미래 성장 전략과 차세대 핵심 기술을 글로벌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현대차·기아 R&D본부장 만프레드 하러 사장(가운데)이 아헨 콜로키움 2026 기간 중 FEV 부스를 방문해 전동화 기술 전시물을 살펴보는 모습.

(R&D)본부장 사장은 지난 6일 독일에서 열린 아헨 콜로키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장하다’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현대차·기아가 아헨 콜로키움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것은 1987년 행사 시작 이래

처음이다.

하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EV)·하이브리드(HEV)·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수소차(FCEV) 등 다양한 동력 장치를 모두 아우르는 ‘xEV’ 전략을 소개하며, 전동화 기술별 강점을 활용해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차량이 사용자의 운전 패턴과 선호도를 학습해 맞춤형 주행 지원을 제공하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기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차량 운행 데이터와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데이터플라이휠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과 가상 검증 중심의 개발 체계를 통해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러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는 하나의 기술이나 해법만으로 구현될 수 없다”며 “다양한 기술의 강점을 연결하는 것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콘퍼런스 행사장에 수소연료전지 및 전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입증했다.

현대차·기아는 행사 마지막 날인 7일 수소, 전동화, 배터리 분야를 주제로 한 기술 세션에도 참가해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미래 가능성과 xEV 전동화 기술의 확장 전략, 차세대 배터리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 등을 공유한다.

한편 올해로 35회를 맞은 아헨 콜로키움은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산하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유럽 대표 자동차 기술 콘퍼런스로, 올해 행사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이 참가해 미래 자동차 기술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삼성, 히트펌프로 아파트 냉난방 전기화

‘EHS 올인원’ 국내 출시 추진
2028년 전국 단위 보급 본격화

삼성전자가 히트펌프 기반 통합 냉난방 솔루션을 앞세워 국내 공동주택의 냉난방 전기화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여해 ‘EHS 올인원’ 히트펌프를 기반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냉난방 전기화와 탄소 저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로 난방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독주택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동주택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정부의 난방 전기화 정책에 발맞춰 2027년까지 국내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2028~2029년 전국 단위 보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



지난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된 고효율 주거용 히트펌프 솔루션 ‘EHS 올인원’.

/삼성전자

라며 “2030년부터는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과 보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HS 올인원은 실외기 한 대로 공기 냉방과 바닥난방, 급탕을 모두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에어컨과 보일러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실외기 설치 공간이 제한적인 아파트에 적합하고, 온돌 중심의 국내 주거 환경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여름철 냉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온수 생산에 활용하는 ‘열회수’ 기술도 적용했다. 스마트싱스를 통해 냉난방과 온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으며 향후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유럽 시장에 EHS 올인원 신제품을 먼저 선보였다. 유럽형 제품은 영하 25℃에서도 난방 운전이 가능하고 기존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68% 낮은 R32 냉매를 적용했다. 올해는 국내 주거 환경에 맞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실제 주거 환경을 활용한 실증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제주 도남동의 실제 거주 단독주택에서 성능과 에너지 효율, 사용 편의성을 검증하고 있다. 용인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에서는 아파트와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 전력 소비량과 운전 소음 등을 분석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운전대·바퀴 연결 없앤 전자식 조향 확산

현대모비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벤츠·테슬라 등 양산 적용 확대

운전대와 바퀴를 기계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Steer-by-Wire)’ 기술의 양산차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잇달아 양산차에 적용하면서 자동차의 핵심 조향장치가 기계식에서 전자·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와 전자식 제동, 독립형 후륜조향 등 차세대 새시 시스템 핵심 솔루션을 확보했다. 조향과 제동을 하나의 제어기에서 통합 제어하는 ‘X-by-Wire’ 솔루션도 개발해 올해 CES 2026에서 공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관련 기술의 양산 적용이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6일부터 신형 EQS 세단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 주문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신형 EQS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실제 주문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벤츠는 독일 완성차 업체 최초로 양산 승용차에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운전대와 바퀴를 연결하는 기계식 조향축 대신 센서와 전기신호로 차량 방향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운전자의 조향을 센서가 감지해 모터로 전달하며, 주행 속도와 상황에 따라 조향비를 소프트웨어로 조절할 수 있다.

저속에서는 적은 조작으로도 바퀴를 크게 돌리고 고속에서는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기계식 조향축이 사라지면서 운전대 형태와 운전석 공간의 설계 자유도도 높아진다.

테슬라와 렉서스도 양산차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릭에 스티어 바이 와이어와 후륜조향을 적용했으며, 렉서스도 전기차 RZ에 브랜드 최초로 해당 기술을 도입했다.

/이승혁 기자 isheo@

LS에코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대

베트남 버스덕트 생산능력 2배 확대
에폭시 고부가 제품 2027년 양산

LS에코에너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대용량 버스덕트 투자로 아시아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빅테크의 동남아 데이터센터 투자에 맞춰 베트남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고부가 제품을 추가해 수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호찌민 생산법인 LSCV가 약 80억원을 투자해 에폭시 절연 타입 버스덕트 생산설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2027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면 전체 버스덕트 생산능력은 기존의 두 배로 확대된다.

새로 생산할 에폭시 타입은 절연성과 내구성이 높아 대용량 전력 공급에 적합한 고부가 제품이다. LSCV는 기존 필름

타입에 에폭시 타입을 추가해 AI 데이터센터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양에 대응할 방침이다.

LSCV의 버스덕트 사업은 데이터센터 공급 확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생산설비를 구축한 이후 플랜트와 고층빌딩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 공급처를 넓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버스덕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의 추가 수요도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말레이시아에 각각 22억달러(약 2조 9460억원)와 20억달러(약 2조 678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원관희 기자

대한항공

글로벌 항공사 ‘3위’

대한항공이 글로벌 여행 전문 매체가 선정하는 주요 어워즈에서 2개 부문 3위에 오르며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항공은 7일 글로벌 여행 전문 매체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가 주관한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글로벌 항공사’와 ‘글로벌 공항 라운지’ 부문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독자가 실제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투표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 부문에서 2024년과 2025년 연속 7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일등석 라운지도 글로벌 공항 라운지 부문 3위에 올랐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 AI로 데이터센터 전력비 25% 절감

AI 에너지 관리 기술 美서 인정

한화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로 미국 ‘패스트 컴퍼니’의 ‘2026 차세대 신기술’에 이름을 올렸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설비를 통합 관리해 전력 운영비를 최대 25% 줄이는 효과를 인정받았다.

한화는 한화퓨처프루프 자회사 트랜스그리드에너지의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플루오(Energy Fluo)’가 패스트 컴퍼니의 ‘2026 차세대 신기술’ 응용 AI 분야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 플루오는 전력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냉각 장치, IT 시스템 등의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이들 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외부 한

경 변화까지 반영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여건에 따라 전력 운영비를 5~25% 절감할 수 있다.

패스트 컴퍼니는 머신러닝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모니터링과 문제 원인 분석, 전력 소비 최적화 역량에 주목했다. 프라이م그룹(Prime Group)이 미국 전역의 옛 데이터센터 구축에 에너지 플루오를 도입한 사례도 소개했다.

설비 운영에 필요한 AI 안전성 검증도 마쳤다. 에너지 플루오는 지난 3월 AI 기술 안전 표준인 ‘UL315’ 인증을 받았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AI가 에너지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되 최종 제어는 운영자의 승인을 거쳐도록 설계해 안전성을 높였다.

/원관희 기자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접수기간 연장 공고

보다 많은 우수 SW·AI 제품·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및 혁신 인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접수마감 연장

~~2026. 9. 30.(수) 18:00~~

→ **2026. 10. 16.(금) 18:00**



시상

2026년 11월 말 예정

2026년 9월 29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I)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SW·AI 제품·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 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의미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용
부총리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 접수마감 : **2026. 10.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awards@kswict.or.kr
-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시 상 : **2026년 11월 말 예정**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세부 심사기준 및 관련 서식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다운로드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심사
(요건심사)

2차 심사
(전문심사)

최종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시상



문의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 Tel. 02-858-8510

※ 본 공고는 2026년 8월 28일 최초 공고의 접수기간 연장 사항을 반영한 안내입니다.

누리호, 위성 15기 분리 성공… 군집위성 체계 구축 ‘착착’

국내 첫 군집위성 다중발사 완수
내년 6차 발사서 5기 추가되면
한반도 하루 3회 촬영 등 가능
발사 정체 상황서 자립 역량 높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역대 최대인 15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한꺼번에 궤도에 올리며 국내 위성산업도 군집 운용에 들어섰다.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2차 발사 이후 4회 연속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사업을 주도하고, 우주항공청·국정원이 지원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누리호 체계중 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의 주관에서부터 발사 운용의 상당 부분까지 맡았다는 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기업 약 300곳이 참여한 누리호 5호기 제작을 총괄하며 협력업체의



7일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5차 발사돼 우주로 향하고 있다.

/황우연

품질 관리·감독을 맡았다.

여기에 5차 발사에서는 발사 운용 현장에서 역할이 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 23명이 발사통제센터(LCC) 콘솔 22개 가운데 20개에 참여했고 이 중 18명이 콘솔을 직접 운용했다.

누리호는 이날 목표 궤도에 진입한 뒤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네온 셋 2~6호)와 부탑재위성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를 순차적으로 분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군집위성 다중 발사 임무를 완수했다. 초소형 군집위성이 1기였던 지난 4차 발사와 다른 점이다. 군집 운용은 여러 위성이 한 팀을 이뤄 궤도를 비행하는 방식으로, 세계 위성산업의 주요 흐름 중 하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5기의 주탑재위성을 순차적으로 정확한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 저충격 위성분리장치를 새로 개발했다. 분리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화약의 힘을 회전 에너지로 전환해 위성을 고정된 볼트를 풀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화약 폭발 방식으로 분리했었다.

무게 100kg 미만의 초소형 군집위성에는 흑색 1m·컬러 4m급 해상도의 전자광학 카메라가 탑재됐다. 내년 누리호 6차 발사에서 7~11호 5기가 추가되면 총 10기의 군집 운용 체계가 갖춰진다. 발사에 성공하면 여러 위성이 지구를 촘촘히 관측하면서 한반도를 하루 3회 촬영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같은 지역을 24시간 이내 다시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성과는 위성 수요에 비해 발사체가 부족한 ‘발사 정체’ 상황에서 우주 발사 자립 역량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 용량이 세계적인 병목을 해소할 수준은 아니지만, 외부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국내 위성을 자체 일정에 맞춰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뜻하는 ‘뉴스

페이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에서 위성 제작에 걸리는 시간을 2~3년에서 2개월로 대폭 줄여 기존 대형 위성보다 제작 기간을 단축한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인 저비용·다빈도 발사 시대가 한층 가까워진 것이다.

정부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고 최종적으로 민간이 전 발사 주기를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체제로 완전 전환하는 게 목표다. 당장 내년 하반기 6차 발사에서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7~11호)를 추가로 쏘아 올려 총 10기의 한반도 정밀 관측 체계를 완성한다.

뉴스페이스 전환 예상 시기는 2029년 8차 발사부터다.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이 연 2~3회 발사할 수 있는 상업 발사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2032년 이후에는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까지 국내 우주산업의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제미나이·챗GPT, 사실상 ‘가격 인상’

제미나이, 경량모델만 무료 이용 가능
‘AI 플러스’ 가입자, 프로모션 사용 불가
챗GPT, 요금제 ‘프로 200’ 조건서
가격은 그대로, 사용 한도는 낮춰

구글과 오픈AI가 개인 이용자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조건을 바꾸고 있다. 구글은 무료·저가 요금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줄이고, 오픈AI는 월 200달러 요금제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AI 사용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구글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무료 제미나이 이용자는 경량 모델인 ‘플래시-라이트’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할 수 있던 ‘플래시’와 ‘프로’ 모델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저가 유료 요금제인 ‘AI 플러스’ 가입자도 프로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변경 이후에는 플래시-라이트와 플래시만 제공된다. 적용 시점은 AI 플러스 가입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안내된다. 상위 요금제인 ‘AI 프로’와 ‘AI 울트라’에서는 세 모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는 개인 계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글은 지난 5월 17일부터 성인 이용자

의 사용 한도를 연산량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질문의 복잡성, 사용하는 기능, 대화 길이 등을 반영하며, 이미지·영상 생성이나 심층 조사, ‘프로’ 모델 이용은 한도를 더 많이 소모한다. 사용 한도는 5시간마다 갱신되지만,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량에 제한이 있다.

오픈AI는 챗GPT의 월 200달러 ‘프로 200’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사용 한도를 낮춘다. 기존 조건 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구독에는 종전보다 낮은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기존 조건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대상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 오전 10시(미국 태평양시간) 사이 프로 200을 구독 중이었던 이용자다. 이들은 구독 기간 중 이달 29일까지 기존 사용 한도를 적용받는다. 이후에는 낮아진 한도가 적용되며, 오픈AI는 변경 대상자에게 별도 이메일로 안내한다.

오픈AI는 지난달 29일 월 500달러의 ‘프로 500’ 요금제도 추가했다. 현재 프로 요금제는 월 100달러·200달러·500달러로 나뉜다. 프로 500에는 ‘GPT-4o 아스트라’의 응답 속도를 높이는 ‘울트라페스트’ 모드도 포함된다. 이 모드는 일반 모드보다 사용 한도를 더 많이 소모한다.

챗GPT에서는 모델별 한도에 도달하면 해당 모델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용자는 다른 모델을 선택하거나 한도가 갱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부 기능은 추가 크레딧을 구매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도 소모량은 모델과 입력 자료의 양, 추론·도구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오픈AI는 사용 한도 축소가 모델의 효율성 향상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안내에는 변경 전후 한도를 비교할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AI업계의 한 관계자는 “AI가 추론 모델을 구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구독형의 경우) 월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토큰을 쓰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팻캐스트 ‘디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쇼’ 공동진행자인 마이크 카푸트 스마터엑스 최고콘텐츠책임자는 지난 6일 공개된 영상에서 한도 변경을 두고 “많은 사람은 이를 사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모델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회사 설명에 대해 “마케팅 표현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민 기자 kbm@

SKT, AI로 100년 전 ‘말모이’ 되살린다

‘에이닷엑스 K2’로 데이터 분석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순 우리말 보존에 나선다.

SK텔레콤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과 ‘2026 말모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사 독자 AI 모델 ‘에이닷엑스 K2’를 활용해 우리말을 분석하고, 순 우리말을 소개한 책자를 배포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고유어 데이터를 분석해 ‘말모이체’를 제작한다. 이를 위해 100여년 전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이 남긴 ‘말모이’의 전체 스캔본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에이닷엑스 K2로 분석했다.

말모이체 출발점은 원고에 있는 갈죽(ㄱ)에 대한 설명이다. 원고 속 글자를 이미지로 분석·정리한 자음과 모음 형태를 바탕으로 서체를 완성했다. 글꼴은 한글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모은 아름다운 순우리말 100선’을 선정해 배포한다. SK텔레콤의 자체 AI 모델이 일상에서 멀어진 순우리말을 분석했다. 선정 기준은 뜻풀이에 서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심상이 담긴 말, 지금 써도 어색하지 않은 말, 제목·



모델이 SK텔레콤 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K2’가 고른 ‘2026 말모이’ 책자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름·자막으로 쓸 수 있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하는 ‘윤슬’, 눈이 와서 쌓인 상태 그대로의 깨끗한 눈을 뜻하는 ‘숫눈’ 등 100개 단어가 담겼다. 해당 자료는 국립국어원 검수를 거쳐 책자로 만들고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다.

한편 우리말 관련 기록을 활용한 캠페인 영상도 공개한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이끈 이극로 선생의 육성 녹음을 담은 영상이 SK텔레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100년 전 우리말을 지키려 노력한 선조들의 기록이 오늘의 글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AI로 풀어냈다. /조민선 기자

“AI 에이전트 역량 갖춘 기업과 협력 확대”

워크데이코리아 하반기 기자간담회
대기업·해외 확장 기업 성장 기반 마련

워크데이코리아가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

7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워크데이코리아 2026년도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하반기 사업 전략과 신규 교육 솔루션이 공개됐다.

이날 하정렬 워크데이코리아 지사장은

“부임 이후 7개월 동안 기존 사업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할 방향을 고민해왔다”며 “하반기부터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로 확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데이는 기존 솔루션 제공 업체에서 앞으로는 AI 시대에 인사관리(HR) 운영 모델을 함께 설계하는 협력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전략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비즈니스 데이터와 추적 기술을 AI 에이전트 설계 단계부터 반영

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 비즈니스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파트너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 구축을 영·오케스트레이션 역량을 갖춘 업체와 협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메트로신문〉 질문에 허 지사장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특유의 대기업 문화로 인해 파트너 비즈니스가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며 “최근 3~4년 동안 관찰한 결과 국내 SI 기업은 이제 대기업의 명령을 받는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기업 고객의 업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

안랩, 암호분석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REPO’ 팀, 암호분석·취약점 해결

안랩은 이정욱 에이퍼스트(A-FIRS T)팀 매니저가 이끈 ‘REPO’팀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2026 암호분석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장려상인 신호기술연구소장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에이퍼스트팀은 안랩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위협 정보 분석 조직이다.

한국정보보호학회와 국군 777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후원하는 이 대회는 암호분석과 취약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고전 암호분석과 블록암호, 동형암호, 네트워크 보안 등 8개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 매니저는 산·학 보안 전문가인 윤도현·윤주열 팀원과 함께 참가했다. 팀은 암호 알고리즘의 구조와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독 기법과 소스코드를 도출했다.

/김보민 기자

삼전·SK하닉 사상 최대 실적… 주가는 ‘실적 이후’가 관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80조 전망
4분기·내년, 실적 피크아웃 우려
외국인 수급 회복 여부 중요해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의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실적 이후로 이동하고 있다. 3분기 실적 눈높이는 높아진 반면 4분기와 내년 이익 전망은 잇따라 낮아지고 있고,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리밸런싱과 자사주 매입 종료 등 수급 부담도 겹치고 있어서다. 역대급 실적이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실적 자체보다 향후 이익 전망과 수급 변화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106조·SK하이닉스 77조… ‘반도체 투톱’ 사상 최대 실적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29% 하락한 26만 8500원에, SK하이닉스는 2.82% 떨어진 172만 3000원에 마감했다.

8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운용자산(AUM) 약 140억달러(약 18조 7600억원) 규모의 반도체 ETF 7종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지만 향후 이익 전망과 수급 부담에 주가 기대감은 엇갈리고 있다.

ETF들은 8일 리밸런싱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편입 비중이 종목별 상한에 가까운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자금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수페타시스, 원익IPS, 한미반도체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SK하이닉스에는 리밸런싱에 따른 자금 유입이, 삼성전자는 자금 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도 유사한 투자 흐름을 보였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7월 이후 연금의 순매도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SK스퀘어로 1조 3531억원이었으며, 삼성전자도 7937억원 순매도됐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조 5988억원 순매수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 수준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의 시장예상치(컨센서스)는 약 106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77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8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동안 이뤄진 급격한 원화 강세로 인해 실적 측면의 비우호적 환경이 조성됐지만, 강건한 판매 정책이 기반해 메모리 평가가 산업 평균을 재차 능가하며 견조한 실적 개선이 가능했다”며 “최근 메모리 사이클 개선 속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향후 1~2개월간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2027년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성

장·저평가·주주환원 매력’이 동시에 발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4분기부터 낮아지는 눈높이…주가 상승동력 ‘시험대’

다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3분기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것과 달리 4분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낮아지는 흐름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16조 6065억원으로, 한 달 전 123조 1176억원보다 5.29%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 89조 493억원에서 88조 1354억원으로 1.03% 낮아졌다. 양사 모두 내년 1분기와 2분기 전망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 하락과 메모리 가격 상승을 둔화 가능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더라도 향후 이익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경우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주가의 핵심인 DRAM과 NAND의 평가는 오히려 예상보다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저평가돼 있다”며 “삼성전자의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4.2배에 불과하며, 이익 창출력은 글로벌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가정을 기존 1450원에서 1400원으로 3.4% 하향하고, 모바일 경험·네트워크(MX·NW) 사업부의 적자 폭을 확대 반영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의 추

계치는 기존 111조원에서 106조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도 수급 변수다. 양사는 지난 8월부터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며 증시 조정 과정에서 출회된 매도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냈다.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면 그동안 주가 하방을 지지했던 수급 주체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본격화한 지난 8월 20일부터 이날까지 개인과 외국인은 두 종목을 약 21조원, 25조 8000억원씩 순매도했다.

결국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외국인 수급이 돌아설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연초 52.33%에서 이날 46.37%로, SK하이닉스는 53.83%에서 49.71%로 각각 낮아졌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뢰가 이어진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에서 4분기 이후 이익 전망까지 낮아진다면 실적 발표가 차익실현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헤더 오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다시 유입될지,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낙관적 전망치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
상폐 결정된 8개사는 거래정지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가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관리종목 지정 이후 진행되는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거래소는 해당 법원 결정과 관련해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과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한 분쟁이 확산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계속 유지한다. 정리매매 전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의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코스피의 주연테크 등 5개사다.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의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의 S HD 등 3개사다.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기준이 강화됐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코스닥은 2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구조다. 기존의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보다 퇴출 요건이 강화됐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별도 퇴출 요건도 도입됐다.

/신하은 기자

9월 새내기주 날았다… 연말 IPO 시장 들쭉

8월 4곳 공모가 밑돌 때 9월 6곳 상승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주가 285.8%↑
공모가·우호적 증시 환경 등 영향

지난 달 상장한 ‘새내기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위축됐던 공모주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상장사 중 와이즈플래닛컴퍼니(285.8%)와 네오사피언스(243%)는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3배를 넘겼다. 반면 8월 상장주 6곳의 월말 수익률은 평균 -23.6%였다. 청약 흥행과는 무관했다. 8월 니어스랩은 수요예측 경쟁률 743.49대 1에도 첫날 30.5% 하락했지만, 9월 스카이랩스는 일반청약 경쟁률이 2.85대 1에 그쳤는데도 135% 뛰었다.

공모가와 유통물량에서는 차이가 보였다. 올해 희망밴드 하단보다 낮게 공모가를 정한 3곳은 모두 9월에 상장했다.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도 8월은 6곳 중 5곳이 30%를 넘었지만, 9월은 5곳이 21~27%대에 그쳤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분위기를 더 큰 변수로 꼽는다. 8월 첫 상장일 전날부터 마지막 상장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3.6% 내렸지만, 9월 같은 기간에는 8.3% 올랐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8월과 9월 상장 기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9월 증시 분위기가 좋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연태우 IR큐더스 매니저도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회복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관사 효과로 보기도 어렵다. 한국투

자증권이 대표주관한 딜리셔스는 8월 첫날 26.6% 하락했지만, 9월 같은 증권사가 맡은 스카이랩스와 글로벌테크놀로지는 각각 135%, 82.2% 올랐다. 삼성증권이 맡은 8월에 상장시킨 니어스랩(-30.5%)과 인제니아테라퓨틱스(+49.9%)도 성적이 정반대였다.

9월 상장 기업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코스닥 상장을 앞둔 AI 풀스택 기업 엘리스그룹의 흥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엘리스그룹은 공모가를 9만 500원으로 확정했다.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2011억원, 상장 시가총액은 1조 544억원이다. 공모가가 상단에서 결정되면서 지난해 10월 리브스메드 이후 약 1년 만에 등장한 조 단위 코스닥 ‘IPO 대어’에 등극했다.

이 밖에도 멜론, 디티에스 등 17곳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준비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연내 IPO에 나설 기업은 20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전까지 막혀 있던 물량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상장 3곳을 주관한 대신증권 관계자는 “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트랙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피 빅딜도 포함돼 하반기 공모실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13일 사전수요예측 콘서트 투자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4분기 초·중반 공모 일정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아영 기자 aykim@

메리츠증권, 리플과 디지털자산 파트너십

토큰화·수탁 인프라 검토

메리츠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 리플(Ripple)과 국내 시장 디지털 자산 도입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메리츠증권 장원재 대표이사과 리플 모니카 롱(Monica Long)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이 글로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토큰화 인프라와 디지털 자산 수탁 솔루션 ‘리플 커스터디(Ripple Custody)’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관련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메리츠증권은 증권업 업무와 현행 규제가



(왼쪽부터) 리플 모니카 롱 사장과 메리츠증권 장원재 대표이사가 1일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맞춰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BPA, 선박 추적 전 세계로 확대… 해외 물류거점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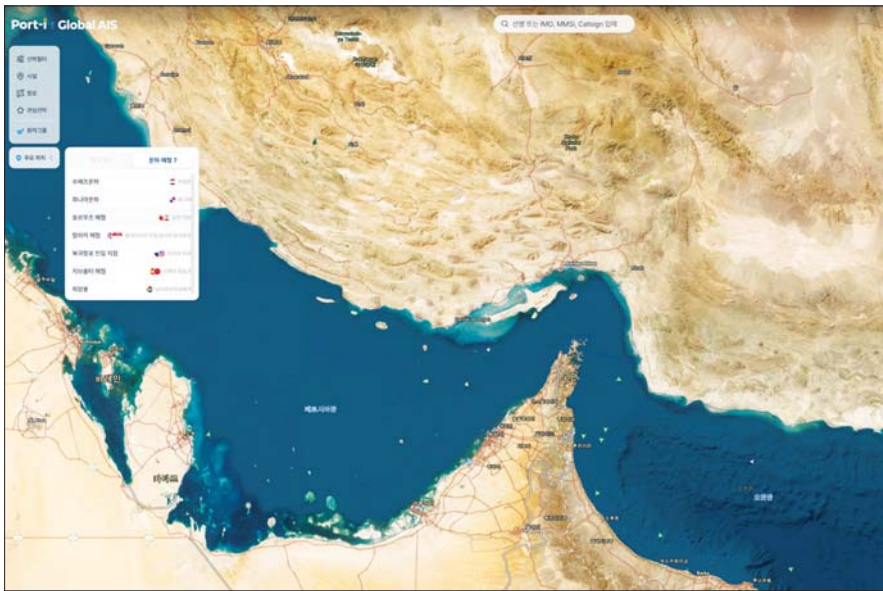
(부산항만공사)

포트아이에 글로벌 AIS 기능 도입
기항 선박 위치·항적 실시간 조회
주요 항만·운하·해협 흐름도 확인
베트남 하이퐁 물류센터 건립 추진
내년 상반기 5번째 해외거점 개장

부산항만공사(BPA)가 선박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국내 연안에서 전 세계 해역으로 넓힌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환적모니터링시스템 '포트아이'(Port-i)에 'Global AIS(국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접목했고, 이로써 해외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다.

글로벌 AIS는 전 세계 선박들의 위치 및 항적 등의 정보를 모아 해상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선박에 부착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정보를 확보한다.

포트아이는 부산항 전 컨테이너 부두의 작업 상황을 연계·통합한 시스템이다. 선박(배를 대는 접안 장소)·선박·화물의 처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 Global AIS 화면 예시. 사진은 호르무즈해협 선박 흐름 현황. /뉴시스

리 현황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글로벌 AIS기능은 ▲부산항 기항 선박의 실시간 위치 조회 ▲2D 평면 지도와 3D 구형 기반의 시각화 ▲선박 위치와 부산항 선석 스케줄의 통합 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포트아이는 그간 부산항 인근 해역의 선박에 한해 위치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Global AIS 도입으로, 부산항 기항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선박이라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위치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 세계 선박 중 부산항

에 입항할 선박만 선별해 지도 위에 표시한다. 선박 위치와 선석(접안) 스케줄을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주요 항구와 파나마·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구간에 있는 선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선박 등록 ▲기간별 항적 조회 ▲항로별 기항 순서 및 항구별 입항예정 선박 조회 등의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포트 아이의 기능은 부산항 항만물류 통합플랫폼인 '체인포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글로벌 AIS 도입으로 포트아이의 시야가 부산항을 넘어 전 세계 바다로 넓어졌다"라며 "북극항로 등 새로운 바닷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부산항의 디지털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BPA의 이 같은 세계화 전략에는 해외 물류센터 건립도 포함돼 있다. 주력 사업

중 하나다.

공사는 9월29일~10월1일 기간 베트남 하이퐁을 찾아 물류센터 건립현장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7월 (주)동방의 베트남 현지 자회사인 동방비나와 하이퐁항 배후 Deep C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공동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물류센터는 부지 1만7183㎡에 연면적 1만310㎡ 규모로 들어선다.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의 5번째 해외 물류센터 건립공사이다. 현지 점검단은 지난달 30일 하이퐁에서 합작법인 B&D Global의 제1회 사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정관 개정을 비롯해 시공 계약, 법인 재무계획 등 주요 안건을 살폈다.

부산항만공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프로볼링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K-푸드, 인도 입맛 맞춰 현지시장 공략

aT·국내기업 10곳 식품박람회 참가
현지 바이어 향신료 접목 제품 제안
희석식 소주 MOU·수출상담 성과

K-푸드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향신료와 연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최근 현지에서 개최된 식품박람회에서는 한국산 주류도 전시됐는데 바이어들은 주정으로 만든 희석식 소주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농식품 기업 10개사와 함께 지난 9월29일~10월1일 기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B2B 국제식품박람회(Anuga Select India 2026)에 참가했다.

aT에 따르면, 행사장 내 조성된 한국관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은 '마살라' 등 인도 소비자에게 익숙한 향미를 접목한 제품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K-푸드의 현지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바이어들과 면담하고, 현지 소비특성을 반영한 제품 개발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aT 관계자는 "이번 한국관은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B2B 국제식품박람회(Anuga Select India 2026)에서 바이어들이 한국산 소주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aT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박람회 전 온라인 상담을 통해 바이어의 관심 품목과 참가기업 제품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현장에서는 관심 바이어와 기업 간 1:1 상담을 연계해 구체적인 수출 협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누가 셀렉트 인디아'는 세계적인 식품박람회 아누가(ANUGA)의 주최사인

윌른메세에서 주관했다. 식품 제조·유통 업체와 수입·유통 바이어 등이 참여해 현지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관에는 신선과일을 비롯해 부각·약과 등 스낵류, 주류, 소스류, 라면, 미숫가루 등 다양한 한국 농식품이 전시됐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수입·유통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과 진출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

참가기업 제품을 활용한 'K-푸드 쿠킹쇼'도 열렸다. 떡볶이와 비빔밥, 김밥, 김치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였다. 또 조리 과정과 시식 체험을 통해 한국 식품의 활용법과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국관 참가기업들은 총 242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류 부문에서 희석식 소주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어졌다.

aT 관계자는 "위스키 소비가 활발한 인도 주류시장에서 소주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지 전수조사 혼선에 정부 "홍보 미흡"

국감서 송미령 "소통 부족했다"
농지법·농촌 현실 괴리 정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 설명·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에서 농지강탈로 인식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저희들이 정말 홍보를 세심하게 잘 못한 듯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결과를 '적합·부적합'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불안을 더 키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해 이웃에게 맡기거나 고령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 등 농촌의 관행이 현행법상 부적합으로 분류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다고 했다. 부적합 판정이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농업인들이 받아들인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현행 규정을 보면 부적합인 것이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농지법과 농촌현실 간 괴리를 언급한 것. 이어 "지금 이게 현행 농지법으로 하면 위반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상화·양성화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한류, 캐릭터 굿즈로 영토 확장

코트라·아트박스 LA 팝업스토어 운영

K-뷰티와 K-푸드가 이끌어온 한류 열풍이 캐릭터 굿즈와 디자인 문구 등 신규 소비재 영역으로 확장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디자인 리빙 유통 브랜드 아트박스와 협업해 지난 3일~11일까지 9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멜로즈 애비뉴에서 'K-캐릭터 굿즈 팝업스토어' 쇼케이스 마케팅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34개사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추진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행사가 열린 멜로즈 애비뉴는 미국 MZ세대와 글로벌 관광객이 몰리는 LA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다. 아트박스, 즐거움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는 다이어리 꾸미기(다꾸), 포토부스 등 한국 특유의 체험형 콘텐츠를 대거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트박스의 글로벌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하일릿(ILLIT)'도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으며, 행사 기간 중 소비자 및 유통 바이어 등 40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브랜드 경험과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MZ세대의 '경험형 소비' 및 취향 기반 '컬렉터블(수집품) 시장'의 성장세를 타깃으로 기획됐다. 열쇠고리, 블라인드박스 등 개성을 표현하는 소형 굿즈 수요가 급증하는 현지 트렌드를 정밀하게 겨냥했다는 평가다. 코트라는 이번 팝업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현지 반응을 기반으로 캐릭터 굿즈를 K-소비재의 신규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I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70% 단축

국립환경과학원, 독성분석 자동화
연간 평가물량 대폭 확대 기대

수백 쪽에 달하는 국내의 독성 보고서를 일일이 찾아 검토하느라 장기간이 소요되던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평가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처리 물량이 대폭 늘어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에 쓰이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날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이미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독성과 노출 정도를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절차다. 그간 유해성 확인부터 용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해 한 해에 평가할 수 있는 물질 수가 연간 15종 안팎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위해성평가의 첫 단계인 '유해성 확인'을 자동화했다. AI가 해외 기관 누리집에 자동 접속해 원문(PDF)을 저장하고, 목차 구조를 스캐닝해

인체·생태 유해성 항목을 탐지한 뒤 표와 설명글에서 독성 값을 정형화해 추출한다. 특히 평가자가 인공지능이 추출한 자료를 즉시 원문과 대조할 수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범 모델인 '아톰(ATOM)'을 통해 유럽연합(EU) 등의 보고서 분석에 이 기술을 적용 중이다. 향후 2030년까지 노출평가와 위해도 결정, 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해 물질당 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10개국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과 협력해 유해성 평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뮤직 드라마

망원경 브리더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예매하기

아구아 해장국

타격타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800조 반도체 투자에 광주권 ‘들썩’… 입시·지역경제 ‘꿈틀’

전남대 공대·지스트 반도체 지원 ↑
켄텍 31.13대 1 역대 최고 경쟁률
소부장·협력사 집적 기대감도 확산
청년 일자리·지역 정착 효과 주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전남광주권 대학입시와 지역경제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공장 건설에 앞서 반도체 학과 지원이 늘고 도시 개발과 연관기업 집적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는 등 이른바 ‘나비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7일 전남광주특별시 내 대학별 입시결과 등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6.65대 1로, 지난해 6.30대 1보다 높아졌다.

특히 공과대학은 713명 모집에 461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71대 1에서 6.47대 1로 크게 상승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공대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반도체 분야 상승세가 확인됐다.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 경쟁률은 6.40대 1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56대 1로 경쟁 뛰었다. 지원 증가율만 놓고 보면 무려 80.6%다.

한국에너지공단(KENTECH·켄텍)은 100명 모집에 3113명이 몰려 31.13대 1로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6학년도 24.33대 1보다 28%나 상승했다.

켄텍 역시 “서남권 반도체 벨트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학부 연구중심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야 했던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

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기관, 협력업체들이 함께 들어서면 대학 교육과 지역 내 취업을 연결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동반 진출도 단연 관심사다. 7월 국회에서 열린 미래차 반도체 소부장 전략포럼에는 LG이노텍과 LG전자, 텔레칩스 등이 참여해 기존 소부장 육성 사업과 대규모 신규 팹 투자를 연결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심철의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반도체 특성상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협력사, 특히 1차 벤더(협력사는 20분 안

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며 “메인 공장 주변으로 상당수의 주력 협력사들이 배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팹 건립에 따른 낙수효과가 적잖을 것이라는 전망도 곳곳에서 나온다.

관련 기업 신입·경력사원 모집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스펙자들이 몰리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긴급 연구 용역과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기업지원 공고 등 관련 용역과 공모도 활발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세계유산축전 안동’ 개최

경북도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세계유산 4곳에서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사)안동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사유의 세계유산, 통섭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6시 하회마을 만송정 숲 백사장에서 열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 온 가족과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생활임금 1만2729원 확정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대비 2029원 높은 1만2729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2275원) 보다 454원(3.7%) 인상된 것이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는 2029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2만4061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이 높은 수준이다. 시는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에 소속 돼 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공동 대응

연내 특별법 제정 2028년 출범 목표
공공기관 이전·핵심기관 유치 협력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광역시시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과 임인환 대구광역시회의의장은 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4차 회담을 갖고 양시·도와 의회의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11월 중 경북·대구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와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공동 발전전략 수립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김희수 경북도의회의장, 임인환 대구시의회의장이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차 회담’에서 공동 합의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 공동 대응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인천, 피지컬 AI로 제조·물류 혁신 시동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실증센터 구축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인천 피지컬 AI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제조·물류 혁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물리적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기술의 검증부터 산업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돕는 전주기 지원 체계 확립을 목표로 시는 이달 중 실증센터 설계와 수요조사를 마친 뒤, 내년 4월까지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여 관내 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산학연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 등에 들

어서는 실증센터는 현장 재현 중심의 ‘모사환경 실증존’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가상환경 실증존’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모사환경 실증존’은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고 자율 이동로봇, 협동로봇, 인공지능 비전검사 장비 등을 연계해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공간이다.

‘가상환경 실증존’은 고성능 인공지능 학습 서버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을 반복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기업별 독립적인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안동, 선유줄불놀이 外人 관광상품 ‘인기’

올해 外人 관광객 1000명 유치 전망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안동의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선유줄불놀이를 외국인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며 올해 총 1,0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한 회차에 외국인 관광객 약 250명이 안동을 찾았다. 공사는 현장 확대행사를 열고 이번 방문이 재방문과 향후 회차 모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사는 연초부터 일본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정해 현지 박람회 등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문 이후 안동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아지자 6월

일본 주요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와 7월 도쿄·오사가 관광홍보설명회를 추진하며 상품화와 모객 기반을 다졌다.

일본에서 확인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화권과 구미주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유줄불놀이 관광을 위해 안동을 찾고 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선유줄불놀이의 성공적인 상품화를 통해 경북 고유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한·일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경상북도와 일본을 잇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양국 관광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김진곤 기자

영양전통시장, 특화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지역 농특산물에 발효 기술 접목
고등어·가오리찜 등 대표상품 개발

영양전통시장이 지역 농특산물과 발효 기술을 결합한 특화 먹거리 개발을 통해 침체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양전통시장상인회는 세계명인 임재은 대표와 협력해 차별화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장터 한마당에서 첫선을 보여 군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겠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영양전통시장상인회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 개발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단순히 방문객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먹거리와 브랜드 상품을 앞세워 시장의 경쟁

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상인회는 두랑농업법인 대표이자 세계명인인 다중발효 전문가 임재은 대표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농특산물에 전문 기술을 접목하고 전문가와 생산자, 시장 상인이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발한 상품을 시장 현장에서 직접 선보이고 판매해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첫 개발 품목은 다중발효 고등어와 가오리찜, 편육, 막걸리 등이다. 상인회는 이들 상품을 시작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를 추가 개발해 군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시장 대표 상품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산시

뷰티, 말레이시아 수출길 넓혀

경산시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6 말레이시아 뷰티엑스포 & 코스모뷰티’에 지역 유망 뷰티기업 6개사가 참가해 320만 달러(약 43억 5000만원) 규모의 수출상담과 80만 5000달러(약 11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경산시는 말레이시아의 K-뷰티에 올해 처음 전시회에 참가했다. 현지 바이어 발굴과 상담을 통해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입과 수출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아산시

대규모 투자 맞춰 산단 확충

충남 아산시가 대규모 기업 투자에 발맞춰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총 13개소, 9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시는 산업단지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계획된 공정에 따라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기업 입주와 생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배후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방 갈매, 배방, 아산영인대인더스, 영인, 배방스마트 복합그린, 둔포밸리 등 6개소, 423만㎡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양수영 기자

무신사, IPO 절차 본격 착수 8조~10조 기업가치 시험대

지난달 초 상장예비심사 청구
‘수익성·글로벌’ 핵심변수 부상
“실적·사업구조 확인 필요한 상황”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기업 공개(IPO)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시장에서 거론되는 8조~10조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까지 외형과 이익이 함께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 해외·오프라인 투자 확대로 수익성이 둔화하면서 글로벌 사업의 성장과 플랫폼 자체의 이익 창출력이 기업가치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달 7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 예정 주식 수는 약 2억2783만주, 공모 예정 주식 수는 2660만주로 전체의 약 11.7%다. 시장에서는 2027년 상반기 상장을 주요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 여성 패션 플랫폼 ‘29CM’, 자체 브랜드(PB) ‘무신사스탠다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거래액(GMV)은 5조원을 넘어섰고 파트너 브랜드는 2만개 이상, 회원 수는 2400만명 이상이다.

실적 성장세도 가팔랐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4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05억



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참고 전경. /무신사

원으로 36.6% 늘었다. 2022년 7084억원 이던 매출은 3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9.6%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과 PB를 확대한 것이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무신사 스탠다드의 지난해 거래액은 약 4700억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PB는 플랫폼 수수료 사업과 달리 상품 판매액이 매출로 직접 잡히는 대신 재고와 임차료, 물류비, 인건비 등의 부담도 뒤따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의 방향은 엇갈렸다. 상반기 연결 매출은 82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하며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523억원으로 11.2%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9.6%에서 올해 상반기 6.4%로 낮아졌다. 해외사업과 물류, 오프라인 확대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사업 구성에서도 플랫폼과 리테일의 성격이 혼재한다. 올해 하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플랫폼 수수료가 38.1%, 제품(PB)이 32.4%, 상품이 23.8%다. 이 같은 구조는 IPO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높은 기업가치를 뒷받침할 핵심 축은 글로벌 사업이다. 무신사는 2030년까지 글로벌 거래액 3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해외 사업은 아직 투자 단계다. 고객 확보와 물류, 반품, 국가별 마케팅 등에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거래액 증가가 곧바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IBK투자증권은 해외 거래액뿐 아니라 반박구매율과 공헌이익이 함께 개선돼야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평가할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IPO 과정에서는 플랫폼과 PB 사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도 관건이다.

조경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8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적 또는 사업구조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올해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둔화 이후 2027년 영업이익과 EBITDA가 의미 있게 반등하는지, 해외 거래액과 매출·고객·브랜드가 확대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농심 영국 템즈강 신라면 캠페인 현장.

/농심

6m 초대형 신라면컵, 英 템즈강 누볐다

농심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전개

농심은 전날 저녁(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상징인 템즈강에서 대형 신라면컵 조형물을 선보이는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신라면컵 조형물은 템즈강을 따라 타워브리지와 런던 아이, 사우스뱅크 등 연간 3800만 명 이상이 오가는 런던 대표 명소를 돌며 관광객과 런던 시민에게 신라면 브랜드를 알렸다.

농심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과 후 나만의 공간에서 신라면으로 스트레스를 풀자는 ‘Work done. Day done. SHIN ME’ 메시지로, 런던을 찾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신라면의 매콤한 행복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약 6m 높이로 제작된 신라면컵 조형물은 6일 오후 런던 로열독스(Royal Dock s)에서 출발해 템즈강을 따라 런던 아이, 빅 벤까지 이동했다. 농심은 조형물에 실제 신라면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연출로 주목도를 높였다. 야간 조명, 대형 젓가락과 함께 뜨거운 라면이 실제로 담긴 것처럼 피어오르는 증기도 구현했다.

농심은 조형물 후면에 영국에서 진행 중인 소비자 프로모션 ‘SHIN TO WIN’도 소개했다. SHIN TO WIN은 농심이 영국 Tesco, B&M, Sainsbury’s 등 전국 유통 매장에서 판매하는 신라면 멀티팩에 스크래치 쿠폰을 넣어 당첨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이다.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2주 간 운영한다.

CJ제일제당 “여수 쌀, 햇반으로 즐기세요”

국산 쌀 소비 확대… 12일 신제품 출시

CJ제일제당이 여주 지역 쌀을 활용한 즉석밥을 선보이며 국산 쌀 소비 확대에 나선다. 지자체와 유통사와 협력해 지역 쌀을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하고 판로 확대까지 이어가는 상생 모델이다.

CJ제일제당은 여주시, 이마트와 협력해 ‘햇반 여주쌀밥’을 오는 12일 전국 이마트에서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품에는 여주 지역 쌀 ‘진상미’를 원료로 사용했으며, 보리 달인 물을 더해 맛과 향을 차별화했다. 밥공기 형태의 용기를 적용했으며 즉석밥 제조 기술을 활용해 밥의 식감도 구현했다.

제품 출시와 함께 여주쌀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도 진행한다. 이마트 앱을 통한 제품 광고와 여주시 내 샘플링, 이마트 여주점 별도 매대 운영 등이 예정돼 있다. 여주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제품과 여주쌀을 알릴

계획이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달 29일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여주시농협조합공공사 업무인, 이마트와 ‘여주쌀 가공식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여주쌀 원료 공급부터 가공식품 개발·생산, 유통과 마케팅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지역 쌀의 가공식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CJ제일제당은 2010년부터 전국 14개 지역 2500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진행하며 지역 쌀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여 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쌀인 여주쌀과 CJ제일제당의 독보적인 기술력, 이마트의 유통 인프라가 만나 뛰어난 맛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국내 쌀 소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출시 20주년… 도수 조정 등 제품 개선
‘부드러운 소주’ 브랜드 헤리티지 강조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사진)’이 출시 20주년을 맞아 초기 디자인과 제품 특성을 되살리는 한편 저도수 트렌드에 맞춰 알코올 도수를 낮추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처음처럼은 올해 4월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초기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제품명에 담긴 ‘처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화하기 위한 리뉴얼이다. 라벨에는 어린 새와 새싹 등 출시 초기의 주요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으며, 대관령 기슭 암반수를 물방울 형태로 표현해 ‘부드러운 소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9월에는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도에 15.7도로 0.3도 낮췄다. 최근 보다 부드러운 소주를 찾는 소비자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수 조정에 따른 맛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감미료 함량도 조정했다.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류 경고 문구를 주상표로 이동해 소비자 주목도를 높였다.

출시 당시 제품을 재현한 ‘처음처럼 클래식’도 지난 5월 리뉴얼 출시했다. ‘20년 전 본연의 레시피로 돌아온, 진하고 부드러운 소주’를 콘셉트로 2006년 출시 당시와 같은 20도 알코올 도수를 적용하고 알라닌·아스파라진·자일리톨 등 당시 사용했던 첨가물을 더했다. 여기에 대관령 기슭 암반수와 쌀증류주, 알룰로오스 등 현재 처음처럼의 주요 요소를 적용해 과

거와 현재의 브랜드 정체성을 연결했다. 라벨은 진한 녹색으로 변경해 제품의 진하고 깊은 맛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품뿐 아니라 암반수를 활용한 체험형 마케팅도 확대하고 있다.

강릉공장에 마련된 ‘처음처럼 브랜드 체험관’은 2023년 4월 문을 연 이후 암반수 체험과 나만의 잔 만들기, 소주 카테일 만들기, 병조명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누적 방문객은 약 4만5000명이다. 특히 10층라운지는 3면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구성됐다. 대관령 기슭의 암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구현하고, 대형 3D 입체 아나몰픽 영상 등을 통해 처음처럼의 원료와 브랜드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글로벌화 박차

싱가포르 전 매장 판매처 확대

파리바게뜨의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 ‘파란라벨’이 싱가포르 전 매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했다. 해외 시장에서 건강빵 수요를 확인한 만큼 향후 미국 등으로 판매처를 넓혀 K-베이커리의 해외 사업을 확

대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선보인 파란라벨을 올해 2월 싱가포르 파란라벨에 처음 출시한 데 이어 최근 싱가포르 28개 전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빵 5종과 샌드위

치 2종 등 7종의 파란라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할랄 인증도 현지 사업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올해 싱가포르 28개 전 매장에 대해 싱가포르 이슬람종교 위원회(MUIS) 할랄 인증을 완료했다. 매장에서 취급·조리하는 제품 전반에 할랄 기준을 적용해 무슬림 소비자까지 고객층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골드바 1돈 등 경품 이벤트

롯데온이 12일 시작되는 ‘온세상 쇼핑 페스타(온쇼페)’ 본행사를 앞두고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티징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티징 기간에는 본행사를 기다리는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닌텐도 스위치 2포켓몬 포코피아 세트, 마샬 스피커 스텝웰 3, 롯데모바일상품권, 골드바 1돈 등을 경품으로 준비했다. 고객은 티징 기간 이벤트에 응모한 후 본행사 기간 동안 경품별로 지정된 쇼핑 활동을 완료하면 해당 경품의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품별 당첨 조건은 고객의 쇼핑 활동에 따라 구성했다. 본행사 기간 중 롯데온 방문 1회 이상, 구매 1회 이상, 상품 조회 3회 이상, 구매 3회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티징 기간 ‘만 원의 행복’을 통해 매일 3개 상품을 특가로 공개한다. 주요 상품은 종근당건강 아임비타 고탐량 비타민D, 롯데칠성 립톤 제로 아이스티 복숭아, 성품양행 한가썬이크, 이룸두유 황성주박사의 국산콩 약콩두유 등이다.

/김서현 기자

체코 양조법에 韓 흑미 활용... ‘서울 메이트’ 다크 라거 탄생

부드바르-서울브루어리 맞손
아시아 최초로 브루어리 협업
흑미 특성 고려한 별도 공정 개발

체코 정통 라거 브랜드 부드바르(Budvar)와 서울브루어리가 손잡고 한국산 흑미를 활용한 다크 라거를 선보인다. 체코 전통 양조법에 서울브루어리의 색깔을 더한 제품으로, 부드바르가 진행하는 글로벌 로컬 브루어리 협업의 아시아 첫 사례다.

부드바르와 서울브루어리는 7일 서울 브루어리 성수점에서 협업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메이트 체코 다크 라거(서울 메이트)’를 공개했다.

‘서울 메이트’는 맥아와 물을 함께 끓여 풍미를 끌어내는 체코 전통 디콕션 매싱(Decoction Mashing) 방식으로 양조했다. 여기에 국내산 흑미를 더해 다크 라거 특유의 은은한 초콜릿 향과 고소한 풍미를 구현했다. 알코올 도수는 4.7%로, 500ml 캔과 생맥주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된다. 서울 메이트 개발 과정에서는 흑미를 양조에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주요 과제였다.



서울 메이트 체코 다크 라거 출시를 기념해 부드바르 홍보대사 라딤 자노벡(오른쪽)과 서울브루어리 이수용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드바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수용 서울브루어리 대표는 “흑미가 일반 백미보다 단단해 분쇄와 당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맥아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어 별도의 방식으로 분쇄해야 했다”며 “특히 디콕션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대량 생산 단계에서 제조 공정을 맞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어려웠던 점을 밝혔다.

라딤 자노벡 부드바르 글로벌 앰배서더는 한국을 협업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세 번째 한국 방문인데 음식뿐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를 좋아한다”며 “한국과 체코의 색다른 브루어리가 협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브루어리와 협업 전) 취리히에서 만나 이 대표가 건네 준 흑미를 처음 끓여 맛봤을

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다”며 “맥아만 사용했을 때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풍미가 나도록 하는 데 흑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가볍고 산뜻한 바디감에 드라이한 피니시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라딤 자노벡 앰배서더는 “라거는 섬세한 맛을 갖고 있고 디콕션 방식으로 풍미를 더했다”며 “매운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맥주”라고 소개했다.

생맥주는 서울브루어리가 보유한 6000L 규모 탱크에서 생산하고, 캔 제품은 대량 생산을 위해 별도 시설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했다. 생맥주는 효모가 살아 있는 상태로 제공되는 반면 대량 생산 제품은 상온 유통을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제품은 이날부터 전국 CU와 주요 대형마트에서 캔 제품으로 판매되며 생맥주는 수도권 주요 취급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체코의 전통 양조 기술과 서울브루어리의 지역적 색깔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수용 서울브루어리 대표는 이날 “서울브루어리는 맥주를 통해 서울의 에너지

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하나의 미션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브루어리는 2018년 서울 합정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250여종의 맥주를 개발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에는 성수동에 양조장을 열었으며,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등 18개국 이상에 맥주를 수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정체성에 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맥주를 선보이는 것이 서울브루어리의 경쟁력”이라며 “전 세계인이 친숙하게 접하는 맥주를 매개로 서울의 에너지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드바르는 체코의 국영 브루어리에서 생산되는 라거 브랜드로, 사츠 홉과 모라비아산 맥아 등을 사용해 저온 숙성 방식으로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서울 메이트 출시를 기념해 이날 서울브루어리 성수점을 비롯한 서울 지역 매장에서 게스트 탭핑과 한정 굿즈 증정 등 소비자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오가노이드사이언스, 美 CGT서 기술력 공개

이틀 연속으로 임상 성과 발표
NAMs·재생치료 ‘투트랙’ 전략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지난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메사 세포·유전자치료제 미팅 2026(Cell & Gene Meeting on the Mesa 2026)’에서 이틀 연속 발표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첫날에는 첨단대체시험법(NAMs)의 CGT 활용 전략을, 둘째날에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임상 성과와 후속 파이프라인을 소개했다. 두 발표 모두 현장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Cell & Gene Meeting on the Mesa는 전 세계 CGT 기업과 투자자, 규제·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 올해도 1500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와 100개 이상의 기업 발표, 5000건 이상의 일대일 파트너링 미팅이 진행됐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행사 첫날인 5일 이경진 CTO가 ‘모델에서 치료제로: NAMs를 활용한 CGT 개발 가속, 후보물질 위험 감소 및 자본 효율성 향상’을 주제로 한 패널에 참여했다. 일라이 릴리, 후지필름, 다크호스 컨설팅 그룹 등과 함께 NA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CTO(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Cell & Gene Meeting on the Mesa 2026’에서 ‘모델에서 치료제로: NAMs를 활용한 CGT 개발 가속, 후보물질 위험 감소 및 자본 효율성 향상’을 주제로 한 패널에 참여했다.

Ms가 CGT 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NAMs는 오가노이드, 사람 유래 세포, 장기칩(Organ-on-a-Chip) 등 인체 생물학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모델을 활용해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과거에는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로 주목받았다면, 최근에는 인체 반응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

질을 개발 초기에 걸러내는 핵심 기술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6일에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미국 자회사인 오가노이드 바이 사우스웨스트(OXSW)가 혁신 세션(Innovation Spotlight)에서 발표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서는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ATORM-C’의 임상 결과와 함께,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침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ATORM-S’의 향후 개발 방향을 소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엠포즈마’, 소아 코로나 적응증 추가 승인

셀트리온, 美 FDA로부터 품목허가

셀트리온은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엠포라’ 바이오시밀러 ‘엠포즈마(AVTOZMA)’의 정맥주사(IV) 제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세 이상 소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적응증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엠포즈마의 COVID-19 치료 대상은 기존 성인 환자에서 2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환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가된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소아 고위험군 및 중증 입원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의약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엠포즈마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6의 작용을 억제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로, 미국에서 류마티스관절염(RA), 거대세포동맥염(GCA), 다관절형 소아특발성관절염(pJIA), 전신형 소아특발성관절염(sJIA), COVID-19 등에 대한 허가를 확보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월 엠포즈마의 피하주사(SC) 및 정맥주사(IV) 두 가지 제형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세경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알보텍과 생산 계약

美 시러큐스서 바이오시밀러 제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 알보텍(Alvotech)과 생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 체결식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Millan 2026’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시장 내 공급을 목적으로 미국 뉴욕 시러큐스 생산 시설에서 알보텍의 다수 항체 바이오시밀러 원료의약품을 제조할 예정이며, 양사는 향후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러큐스 생산공장은 4만 리터(L)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용 바이오리액터를 비롯해 자체적인 공정 개발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상업용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확고한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불시 실시를 ‘지적 사항 없음(Zero Observations)’으로 통과해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리사 그레이버 알보텍 대표이사, 로버트 웨스만 알보텍 회장(왼쪽부터)이 생산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규제 준수 역량을 입증했다.

알보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를 통해 확보한 추가 생산 능력은 알보텍의 자체 개발 및 제조 역량과 기존 파트너십을 보완하여, 확장 중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해피바스, 산양유 바디워시·로션 출시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고보습 제품

아모레퍼시픽이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 제품군을 확장하며 영유아부터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고보습 뷰티를 제안한다.

아모레퍼시픽은 해피바스 신제품으로 오라지널 칼라센 ‘산양유 바디워시(샤진)’와 ‘산양유 바디로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산양유 바디워시’는 산양유 성분에 시어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결합해 샤워 후

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해 준다. 피부 알자 자극 테스트 및 안자극 대체 테스트를 완료하고 5가지 격정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향은 살냄새 특유의 은은함을 살린 두 가지로 구성됐다. 깨끗하고 포근한 코트·머스크 조합의 ‘밀크 블랑쉬향’과 따뜻한 달콤한 ‘바닐라 머스크향’을 탑재했다.

함께 출시된 ‘산양유 바디로션’은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밀착 보습력을 갖췄다.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제형을 설계해 바디워시와 병행 사용 시 보습력과 향 유지력을 높인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금목서, 베이비 파우더, 체리블로섬, 솜 라벤더 등에 이어 산양유를 추가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며 “우수한 기능과 샤워 후에도 기분 좋은 잔향이 일상 속 바디케어를 다양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현 국회의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30~16:0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00~16:3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LG유니참, 친환경 에너지 기반 ESG 경영 강화

LG유니참이 친환경 에너지 기반 다양한 공생 활동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 LG유니참은 올해 태양광 발전량은 약 122만 6000k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업계 최초로 메인 생산 설비에 태양광 그린에너지를 도입해 '쏘피 쿨링 프레쉬', '쏘피 오가닉 무표백' 등 주요 위생용품 생산해 오고 있다.

/LG유니참



SK이터닉스, 밀알복지재단에 겨울키트 기부

SK이터닉스는 지난 6일 임직원들과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밀알복지재단에 키트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추위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임직원 20여명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방한용품 8종을 담은 키트를 직접 제작했다.

/SK이터닉스



롯데GRS, 이주배경아동에 한국어 교육 지원

롯데GRS는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과 함께 '2026 한글날 100주년 기념 이주배경아동 한글·진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주배경 아동의 언어 장벽을 낮추고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GRS는 한국어 교재와 자석 글자, 낱말 카드 등 맞춤형 한글 교육 교구재를 지원한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롯데GRS



'노벨화학상' 기타가와 교수, 고려대서 강연

고려대는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제12회 Next Intelligence Forum(NIF)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스스무 기타가와 교수가 공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를 분리·저장·활용하는 기술이 미래 산업의 주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등 기체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연구 사례도 소개했다.

/고려대



삼육대, 오는 23일 개교 120주년 기념식 열어

삼육대는 오는 23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 홍명기홀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S U-RISE 미래캠퍼스' 계획을 소개하고 새로운 워드마크도 공개할 예정이다. 'SU-RISE 미래캠퍼스'는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지하 공간에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삼육대는 캠퍼스 공간을 재구성하고 교육과 문화 기능을 결합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삼육대

삼성전자, '아트 스토어'에 빈 박물관 소장품 43점 추가

〈오스트리아〉

루브르 박물관 이어 콘텐츠 강화 작품 바벨탑·회화의 예술 등 선배 무반사 디스플레이 기술 적용

삼성전자가 유럽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을 TV로 옮겨오며 아트 구독 서비스의 콘텐츠를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7일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43점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이어 빈 미술사 박물관의 명작도 집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조나단 파인 빈 미술사 박물관 연합 총괄 관장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명작을 감상할 수 있어 예술의 문턱이 낮아지고, 화면으로 만난 벽찬 감동이 실제 박물관 방문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 미술사 박물관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1891년 개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했다. 특히 브뤼헬의 회화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한 곳으로 화화관에서는 15세기 초기 유화부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이르는 유럽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피터르 브뤼헬 1세의 '바벨탑',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회화의 예술', 구스타프 클림트의 '누다 베리타스' 등이다. 아르침볼도의

'여름'과 카날레토·벨로토가 그린 베네치아와 빈의 풍경화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화풍과 시대, 분위기에 따라 작품을 골라 TV 화면을 꾸밀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작품의 세부 표현을 살리기 위해 미술관이 제공한 고해상도 이미지에 무반사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했다. 화면 표면의 특수 코팅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 햇빛이나 실내

현대모비스, 현장 담은 다큐 '3관왕' 한글날 100주년 맞아 'HS효성체' 배포

프랑스 칸 기업광고제 등 수상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현장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단순히 전문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원들의 도전과 현장 이야기를 콘텐츠로 풀어내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현대모비스는 스웨덴 동계시험장에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Why Fight Cold?'가 글로벌 주요 콘텐츠 어워드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프랑스 칸 기업광고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토모티브 부문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 또 북미 지역 대표 콘텐츠 시상식인 텔리어워드에서 은상을, 아시아 지역 뮤즈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에서는 다큐멘터



현대모비스 연구개발 다큐멘터리. /현대모비스

리와 오토모티브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20여 분 분량의 영상에는 전자식 제동시스템(EMB), 후륜조향시스템(RWS), 에어서스펜션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새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영하 40℃까지 내려가는 스웨덴 동계시험장에서 반복적인 검증을 거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양성운 기자 ysw@

HS효성, 전용 서체 무료 공개

HS효성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전용 서체 'HS효성체'를 무료로 공개한다.

HS효성은 임직원의 제안을 반영해 전용 서체인 HS효성체를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HS효성체는 2024년 7월 그룹 출범 당시 기업 정체성(CI)과 함께 선보인 서체다.

HS효성체는 별과 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CI 마스터리아(MASTERIA)의 디자인 철학을 담았다.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그룹 비전을 바탕으로 기하학적 산세리프 양식(Geometric Sans-serif)을 적용했다. 깔끔하고 균형 잡힌 형태와 높은 가독성이 특징이다.

이번 공개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임직원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한 임직원은 "여러 문서에 회사 폰트가 적용된 모습을 볼 때마다 가독성이 좋고 브랜드 색깔이 잘 드러난다"며 "무료로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용 서체의 외부 공개를 검토하던 HS효성은 대중과의 소통을 넓히고 한글 글꼴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HS효성 브랜드팀 관계자는 "이번 전용 서체 무료 배포는 HS효성의 '가치' 또 '같이'라는 가치경영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며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대중과 나누어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제네시스, 부산국제영화제 10년 연속 후원

의전차량으로 100여대 제공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공식 후원하며 10년 연속 파트너십을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2017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한국과 아시아 영화 산업의 저변 확대를 지원해 왔다. 올해 영화제 기간에는 주요 감독과 배우, 영화제 관계자를 위한 의전차량으로 GV90, G90, GV80 하이브리

드, GV80 블랙, GV70 전동화 모델 등 100여대를 제공한다.

지난 6일 열린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브랜드 최초의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 네오론'을 의전차량으로 운영했다. 영화제 기간 영화의전당 메인 스테이지 인근에도 GV90 네오론을 전시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제네시스가 제작을 지원한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기념 단편영화 '플레시 임팩트'도 상영된다.

/양성운 기자

한글 붓글씨 뽐내는 '휘호대회' 열린다

내일 광화문광장서 진행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한 휘호대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2시간 동안 한글을 주제로 붓글씨를 선보인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원은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뒤편 육조마당에서 제17회 광화문광장 휘호대회'를 개최한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행사는 '한글,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열린다. 1차 예선에서 작품 심사를 거쳐 선발된 400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이 중 외국인인 100여 명으로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20여 개국 출신이다. 심사 부문은 전통한글(궁체·관본체), 문인화, 캘리그래피 등으로 나뉘며, 참가자는 국내 일반인과 외국인, 장



지난해 열린 휘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다. /한국예술문화원

애인, 학생으로 구분된다.

대회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글을 주제로 붓글씨를 쓴다. 제한 시간은 2시간이다.

시상은 한국예술문화원이 서예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문체부장관상·서울시장상 등 각 부문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오는 12월 12일 열리며, 수상작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촉 △위원 이성엽 △위원 박민철 △위원 양동훈

부음 ▲박차숙 씨 별세, 김광명 씨 부인상, 김태일·태훈 씨(군인공제회 건설인프라본부 건설사업팀장) 모친상 = 7일 오전 3시 3분, 부산 BHS동래한서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9일 오전 9

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582-1041 ▲신경도 씨 별세, 지선희씨 남편상, 신창주·신윤정(아시아나항공차장)·신혜영 씨 부친상, 이성춘(여수좌수영요양병원 원장)·김승현(중앙일보 논설위원)·조창호(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씨 장인상 = 6일 오후, 여천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8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여수 영락공원 추모의집. 061-685-4444

천천히 달려도 운동이 될까?



이준민 박사의

건강운동 가이드

달리기를 마치고 스마트폰의 러닝 앱을 열어본다. 거리와 심박수, 1km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이 화면에 뜬다. 평균 페이스는 8분대다. 곧 다른 사람의 기록이 눈에 들어온다. 누군가는 같은 거리를 5분대에 달렸다.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기록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천천히 뛰어도 운동이 될까?’ 러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천천히 달려도 운동은 된다. 건강을 위해 달린다면 반드시 빠르게 뛰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속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다만 ‘달리기’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몇 분 페이스로 달렸느냐보다 그 속도가 내 몸에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가다.

◆같은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다

최근에는 기록을 줄이기보다 숨이 많이 차지 않는 편안한 속도로 달리는 방법에도 관심이 높다. 하지만 ‘천천히 달린다’는 기준을 1

km당 몇 분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평소 꾸준히 달리는 사람에게 7분 페이스는 편안할 수 있다. 반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몇 분 만에 숨이 잘 정도로 힘든 속도일 수 있다. 나이와 체력, 운동 경험, 건강 상태에 따라 같은 속도도 몸에는 다르게 작용한다.

최신 운동과학에서도 고정된 속도나 심박수 비율만으로 모든 사람의 운동 강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달릴 때는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힘든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달리면서 대화할 수 있는가

운동 강도를 가능하는 간단한 방법이 대화다. 달리면서 대화는 이어갈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려운 정도라면 중간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가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몇 마디를 한 뒤 숨을 쉬어야 할 정도라면 운동 강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일 수 있다.

물론 같은 정도로 대화할 수 있어도 체력과 운동 경험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스마트워치의 심박수처럼 운동이 지나치게 힘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에게 일주일에 150~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또는 75~150분의 고강도 활동을 권한다. 주요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운동도

일주일에 2일 이상 권고한다.

특히 ‘1km를 몇 분 안에 달려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 하나가 아니라 운동 강도와 시간, 횟수, 그리고 이를 얼마나 꾸준히 이어갔느냐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취미로 하는 달리는 심폐체력을 높이고 체지방과 안정 시 심박수 등 일부 건강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역시 무조건 빠르게 달려야만 얻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자극을 일정 기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달리면 다치지 않을까

러닝 손상은 속도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전에 다친 경험, 최근 달리기 양의 변화, 회복 상태, 근력과 움직임 특성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평소 3km를 달리던 사람이 속도를 낮췄다고 어느 날 갑자기 10km를 달린다면 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속도가 느리면 더 오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전체 운동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천천히’와 ‘적게’는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느린 속도는 운동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달리는 시간과 거리가 크게 늘어나면 뼈와 관절이 받아들이는 전체 부담도 커진다.

/스포츠운동의학 박사·고려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외래교수

수년의 기술, 새는 건 한순간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집에 아무리 좋은 자물쇠를 달아도 옆문이 열려 있으면 소용없다. 보안 역시 한 곳에 빈틈이 생기면 무너지기 쉽다. 특히 반도체처럼 여러 기업과 인력이 기술을 공유하며 움직이는 산업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할 문제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세메스 임원을 지낸 김모씨는 재직 당시 다루던 전장형 웨이퍼 이송장치(OHT) 설계도면 등 주요 기술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반출 경로와 유출 기술의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반도체 기술 유출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

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49건이다. 이 가운데 해외 반출을 시도한 사건은 19건으로 전체의 38.8%에 달한다.

기술을 노리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안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대기업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나 2·3차 협력사의 빈틈을 파고드는 식이다. 퇴직이나 이직 과정에서 핵심 인력을 통해 기술이 빠져나갈 위험도 여전하다.

문제는 한번 빠져나간 기술을 다시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수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은 기술과 노하우가 경쟁사로 넘어가면 상대는 그만큼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의 초점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넓히고 있다. 산업통

상부는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인력 관리부터 수사와 재판, 불법수익 환수와 피해구제까지 연결하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이런 대책이 현장의 빈틈까지 메울 수 있느냐다. 기업마다 보안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다른 상황에서 기술 보호를 개별 기업의 몫으로만 남겨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와 연구기관 등 기술을 함께 다루는 곳의 보안 수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업계는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벌린 격차를 보안의 빈틈 때문에 내줄 이유는 없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공을 들이는 만큼 이미 확보한 기술을 지키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hyeon@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8일 (음 8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하루입니다. **60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가득합니다. **72년생** 모든 일이 무난하게 풀리고 주변도움도 받습니다. **84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타납니다.



소

49년생 자신의 생각을 믿는게 좋습니다. **61년생** 타인의 실수를 풀어주고 배려해주세요. **73년생** 처음엔 어렵지만 노력하면 결과는 좋습니다. **85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로랑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도끼

51년생 기다리던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3년생** 항상 몸조심, 말조심 해야 합니다. **75년생** 술자리에서 과음은 독이 됩니다. **87년생**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운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뱀

53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65년생**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시켜 보세요. **77년생** 평소와 다른 애정표현이 필요합니다. **89년생** 그룹에 행운이 따르는 운이 있습니다.



말

54년생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66년생**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78년생** 일보다는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90년생** 큰 일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세요.



양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56년생 오랫동안 숙원한 일이 이뤄집니다. **68년생**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92년생** 여행도중에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닭

57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69년생** 뒷사람의 말을 잘 새기세요. **81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금전운이 좋으나 방심하지 마세요.



개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갈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돼지

59년생 고민은 많으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71년생** 지금보다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83년생**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95년생** 옛 친구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천성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은 아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성격이 곧 사주”라는 말까지 있게 된다. 팔자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건강, 육친과의 복덕 등 관계의 호오는 물론이거니와 펼쳐질 운명의 지도와 같다. 태어난 성품이나 성격이니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 천성인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인터넷으로 사주를 보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인생사 만병통치 처방처럼 따별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등등 심심풀이 차원의 가벼운 사주풀이를 보게도 된다. 그러나 인생은 심심풀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 내릴 수도 없다. 예를 들면 따별 성격의 숨길 수 없는 특성도 같은 쥐띠라 할지라도 남자나 여자나에 따라, 각각의 운이나 태어난 시간대에 따라서도 드러나는 강도나 모양새도 사뭇 다르다.

맞거나 틀려도 말 그대로 심심파적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대표적인 기본적 천성을 따져본다면 쥐띠는 영리한 계산 성을 우선으로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쥐띠라 할지라도 사주에 인성이 있게 되면, 즉 인수적인 경우 속으로는 계산을 하나 겉으로는 체면 때문에 이익을 잘 따지지 못한다. 인수적인 경우 인성이라는 의심만 많아서 요리조리 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을 터인데, 결정 장애 적 천성의 소유자라 할 수 있겠다. 소피의 경우는 우직한 소의 특성처럼 행동이 가볍지 않고 무게는 있으나 고집이 만만치 않다.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소리도 종종 듣는다. 만약 팔자에 유쾌나 자기가 있다면 그 지지에 해당하는 육친의 말에는 고분고분하다. 밖에서는 똥해도 집에 들어오면 순하고 우직한 모습이다. 고치기 힘들다는 천성도 운이 흐르는 기운에 따라 발현 정도와 방향이 사뭇 다른 것이니 말 그대로 움직이는 명수이라 하여 운명 운수이라 명명한 것이지 않단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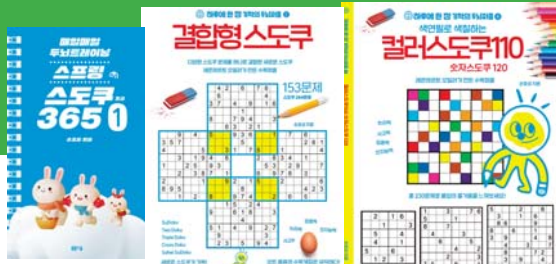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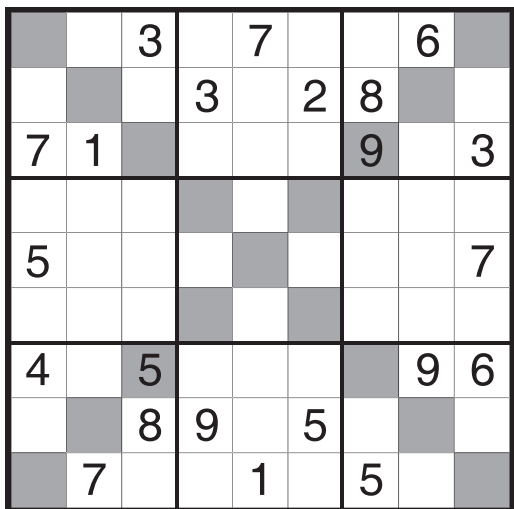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9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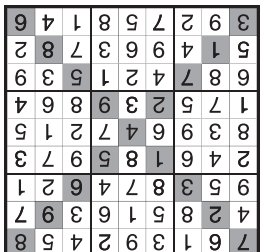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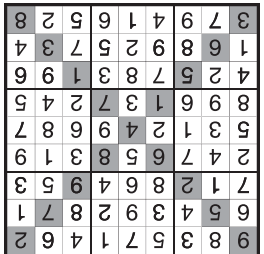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홍지선 “연말까지는 주택가격 안정화 될 것”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여야, 부동산 시장 두고 난타전
홍 장관 “수도권 주택 신속 공급”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야 난타전으로 출발했다. 집값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아권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연말까지는 집값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초반 60%를 웃돌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반토막이 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동산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86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을 기록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연장) 단순히 국토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세 제도의 경우) 1인 가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도 증가하고 전세 사기 여파도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며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하,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 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호반건설, AI 기반 BIM 자동생성 기술 개발

(빌딩정보모델링)

설계기법에 입주자 선택 옵션 자동 반영

호반건설이 입주자가 선택한 옵션을 3차원 설계기법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호반건설은 건축·인테리어 자동화 솔루션 기업 몰더코리아와 AI 기반 빌딩정보모델링(BIM) 자동 생성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BIM은 건축물의 설계·시공 정보를 담은 3차원 모델이다. 몰더코리아는 지난 5월 ‘2026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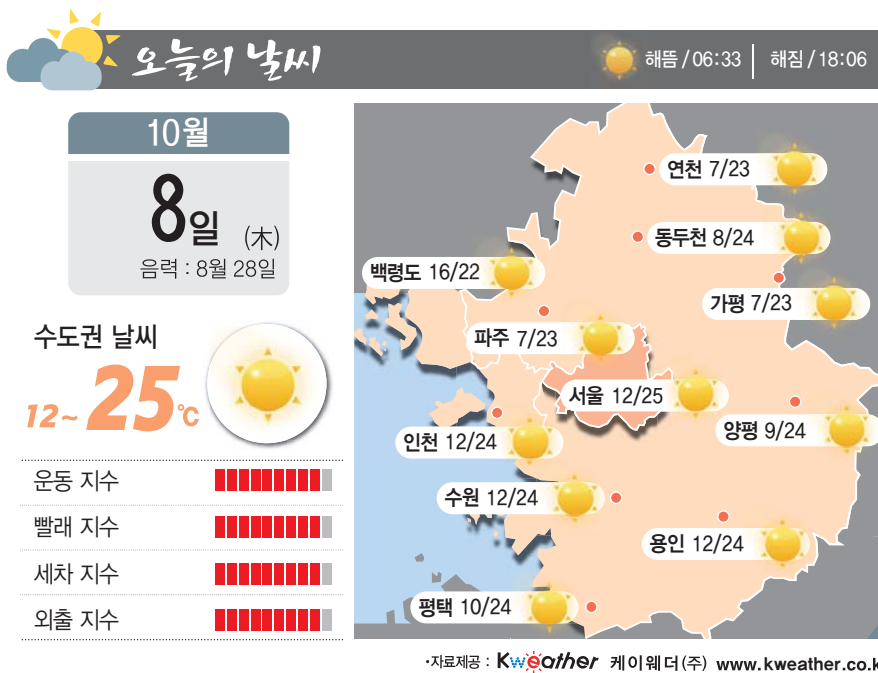
최근 아파트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입

주자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 내부 구성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세대별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공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번 기술은 AI를 활용해 2차원 설계도면을 3차원 모델로 바꾸고, 옵션 정보를 반영해 각 세대에 맞는 모델을 한꺼번에 만든다. 현장 관리자는 이를 통해 옵션 품목과 시공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사는 경기 김포시 ‘호반써밋 풍무’ 건설 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했다. 입주 예정자의 선택 사항을 반영한 전 세대의 3차원 마감 모델을 구현하고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성채리 기자 cr56@



메트로 한줄뉴스

- ▲ EU 집행위, 확대 개혁안 제시…가입 절차 간소화·의무 위반시 투표권 정치
- ▲ 기후부, 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서 전력망 협력 논의



- ▲ 트럼프 “LA·샌디에이고 파괴하게 되라”…뉴섬 주지사 “정신병 의심”
- ▲ ‘페스트 우려’ 속 러시아 정부, 감염병 확산 방지법 심의

- ▲ 中, 대만 첫 F-16V 첫 인수 “美 무기 판매 강력히 반대”
- ▲ 美 안드릴, 66억불 첨단 잠수함 조선소 계획…트럼프 “2차대전 이후 최대”

목동재건축 시공사 선정 줄이어 인허가 등 사업 단계는 ‘제각각’

시공사 선정과정 단독 응찰 잇따라
9·13단지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3단지 아직 조합설립 단계 머물러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 단계로 속속 접어들고 있다. 6단지가 시공사를 확정한 데 이어 10·12단지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등 사업이 진전되는 중이다. 다만 인허가와 조합 설립 등 단지마다 밟고 있는 절차가 달라지면서 14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각기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목동10단지는 오는 18일 주민 전체회의를 열고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은 지난 3일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주 홍보관을 열고 제안 내용 설명에 들어갔다. 10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424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공사비는 약 2조6000억원 규모다.

12단지도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진전이 있었다. 목동12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일 GS건설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향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48단지도 시공사 선정 절차가 한창이다. 4단지는 지난달 30일 첫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H 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4개사가 참석했다. 입찰 마감은 다음달 16일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6389억원으로 3.3㎡당 1010만원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지가



서울 목동 9단지 재건축 조합도.

/서울시

운데 3.3㎡당 예정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4단지가 처음이다.

8단지는 같은 날 재입찰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첫 입찰이 유찰된 뒤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만 참석했다.

목동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단독 응찰이 잇따르고 있다. 6단지는 두 차례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한 뒤 지난 6월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10단지와 12단지도 각각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두 차례 단독 응찰한 뒤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했다.

인허가 절차에서는 9단지와 13단지가 지난달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건축·경관·교통 등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거치면서 후속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7단지는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8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접수

했다. 지난달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 입찰을 공고했으며 다음달 중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반면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지도 있다. 3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평형별 이해관계 등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으로 조합 설립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같은 목동신시가지 안에서도 이미 시공사를 정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아직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무른 곳도 있는 셈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연구실 도시공학박사는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도 이후 사업 과정에서 선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절차만 놓고 어느 단지가 빠르거나 느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1인 가구, 집 유무 따라 자산 3.6배 격차

서울복지재단, 경제·금융 수준 분석
고령층으로 갈수록 자산격차 벌어져

같은 나이의 서울 1인 가구라도 집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자산 수준에서 큰 격차가 나타났다. 40대 초반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자기 집에 사는 1인 가구의 자산 수준은 무주택·비자가 거주자의 2.5배에 달했다. 60대 후반에는 이 격차가 3.6배까지 벌어졌다.

7일 서울복지재단이 공개한 서울 1인 가구의 경제·금융 수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40~44세 1인 가구의 자산 지수는 무주택·비자가 거주자가 84.2, 주택보유·자가 거주자는 214.0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령 전체의 자산 수준을 100으로 환산한 수치로, 두 집단 간 격차는 약 2.5배다.

소득보다 자산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같은 연령대의 소득 지수는 무주택·비자가 거주자가 94.4, 주택보유·자가 거주자가 126.0으로 약 1.3배 차이가 났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지수는 117.1,

자산 지수는 204.4였다.

같은 연령대 안에서 나타나는 자산 격차는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65~69세의 자산 지수는 무주택·비자가 거주자가 70.2인 반면 주택보유·자가 거주자는 250으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주택 보유·거주 형태에 따라 대출 등 금융 이용 양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40~44세 가운데 대출잔액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무주택·비자가 거주자가 37.64%, 주택보유·자가 거주자는 55.58%로 약 18%포인트 차이가 났다. 동일 연령 전체와 비교하면 각각 3.82%포인트 낮고 14.12%포인트 높았다.

대출잔액 수준의 차이는 더 컸다. 동일 연령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무주택·비자가 거주자의 대출잔액 지수는 73.7인 반면 주택보유·자가 거주자는 207.70이었다. 주택보유·비자가 거주자는 163.7로 집계됐다.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사람의 비중도 차이가 났다. 40~44세 가운데 DTI가 0을 넘는 사람은 무주택·비자가 거주자의 42.83%인 반면 주택보유·자가 거주자는

68.37%였다.

카드 이용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다. 카드이용자 비율은 무주택·비자가 거주자가 83.76%, 주택보유·자가 거주자는 99.19%였다. 동일 연령 전체와 비교하면 각각 3.33%포인트 낮고 1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용점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40~44세의 신용점수(K_SCORE) 지수는 무주택·비자가 거주자가 96.7, 주택보유·자가 거주자가 103.4였다.

이번 분석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1인 가구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민 92만13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CB·신한카드·SK텔레콤의 가명정보를 활용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통계가 연령을 고정한 상태에서 주거 유형별 특성을 비교한 기술통계로, 주거 유형이 경제·금융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무신사
IPO 절차 착수
기업가치 시험대
L1

metro®

Life

한국산 흑미
‘서울 메이트’
다크라거 탄생
L2



‘빨간통’ 한방삼푸의 변신... 감성·향 채워 1억병 신화 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아모레퍼시픽 ‘려’

◆40년 연구 정수 ‘진센엑스’

‘려’의 뿌리는 1973년부터 시작한 아모레퍼시픽의 인삼 연구에 있다. 1972년 ‘인삼 유효성분 추출’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116건에 달하는 인삼 관련 특허를 구축한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브랜드 ‘려’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다.

성장의 기틀이 된 대표 제품인 ‘자양윤모’ 라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탈모 방지 신기술(NEET) 인증을 획득한 ‘진센엑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집어삼켰다. 사포닌 성분을 기존 대비 10배 강화한 인삼엑스로 약해진 모근을 다지는 한편, 당대 최고 배우인 박신혜, 김성령 등을 모델로 내세워 ‘풍성하고 건강한 헤어’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전통 ‘흑운생기’에 두피과학 결합
1973년 인삼 연구에서 시작한 한방삼푸
탈모증상 완화... 건강한 헤어 대명사로
두피고민 맞춰 4가지 맞춤 라인업 재편
모근강화·두피 장벽케어·보습 동시에

◆완전히 새로워진 혁신 포인트 3개

아모레퍼시픽은 려의 대중적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탈모 고민이 2030 세대와 여성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간파했다. 일명 ‘빨간통 삼푸’이라 불리던 려 베이직 제품군에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했다. 국민 삼푸라는 기존 명성에 부합하는 강력한 기능성과 트렌디한 감성을 불어넣기 위해 제품의 근본부터 바뀌 공개했다.

우선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두피 고민에 맞춰 ‘함빛(극손상·영양)’, ‘흑운(볼륨·모근강화)’, ‘청아(답글렌징·지성)’, ‘순환(민감)’ 등 4가지 맞춤 라인업으로 정교하게 재편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전 제품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을 탑재했다. 기존에는 탈모 전용 제품과 일반 세정 제품을 구분했었다면,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일상적인 삼푸만으로 탈모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으로 처방했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식물성 트리플콜라겐’ 기술을 적용했다. 여주 쌀 유래의 식물성 유사 콜라겐과 아모레퍼시픽의 피토타이언스 기술을 결합해 ‘모근 강화’, ‘두피 장벽 케어’, ‘두피 보습’을 동시에 이뤄내는 3단계 관리법을 완성했다. 약해진 모근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 장벽을 단단하게 다져 근본적인 모발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임상 결과로도 검증을 거쳤다.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시험 결과, 단 1회 사용만으로도 손상도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잦은 염색과 펌으로 손상된 모발의 영김 해소에 드는 힘이 38%나 감소하는 명확한 리페어 효과를 입증했다.

아울러 기존의 선입견을 허문 ‘100% 달라진 감성 조향’을 구현했다. ‘려’ 하면 떠오르던 특유

한 시대를 풍미한 장수 브랜드가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지속 성장을 이뤄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강력한 브랜드 헤리티지가 도리어 ‘올드함’이라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때는 더욱 그렇다. 아모레퍼시픽의 고기능 탈모 케어 브랜드 ‘려(RYO)’는 이 난제를 보란 듯이 해결해 낸 대표적 브랜드다.

려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뜻하는 ‘흑운생기(黑潤生氣)’ 미학에 아모레퍼시픽의 수십 년 두피 과학을 결합해 국내 한방 프리미엄 삼푸 영역을 개척해 왔다. 이제는 한방 브랜드에서 감각적인 디자인, 독자적인 기능성 기술, 세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앞세워 2030 세대와 글로벌 시장까지 사로잡는다.



성별·원인별 맞춤케어 려 ‘루트젠’



려 ‘베이직’ 제품군.



려 ‘루트젠’ 제품군.

의 한방 인삼 향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글로벌 전문 조향사와 협업해 호불호 없이 은은하고 세련된 5가지 허브 및 부드러운 플로럴 소재로 향을 완전 교체했다.

◆루트젠, 여성 탈모 관리 전란

베이직 제품군이 전 연령대의 일상 속 두피 관리를 책임진다면 ‘루트젠’은 성별 및 원인별 맞춤형 케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M자 이마가 주된 고민인 남성과 달리, 여성은 가늘어지는 모발과 넓어지는 가르마, 정수리 볼륨 감소가 핵심 고민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루트젠 라인업 ‘모근(루트, Root)’과 ‘유전자(진, Gen)’의 개념을 결합했다. 려의 독자 기술인 ‘ROOT:GEN’과 새로 자라나는 모발을 집중 관리하는 ‘그로우 펌타이드’ 기술을 적용해 모발을 밀도 있고 힘있게 가꿔준다.

제품 구성 역시 섬세하다. 볼륨이 살아나는 삼푸, 두피까지 케어하는 트리트먼트는 물론, 팔사봉 팁으로 두피를 직접 마사지할 수 있는 두피 에센스, 내추럴 볼륨 픽서 등까지 갖춰 세정부터 스타일링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 솔루션을 완성했다.

한방 인삼향 벗고 허브·플로럴 향 더해
성별·원인별 맞춤케어 새 지평 ‘루트젠’
세정부터 스타일링까지 통합 솔루션 완성
세련된 패키지로 젊고 정교한 인상 더해
중화권 등 글로벌서 대표제품 판매 호조

◆글로벌 프리미엄 헤어 시장 공략

국내 시장에서의 대대적인 성과는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2분기 해외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중화권 시장에서 브랜드 대표 제품 ‘자양윤모 퍼퓸’, 신제품 ‘서울선셋 오일’ 등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강력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현지 최대 이커머스 티몰에서 탈모 에센스 카테고리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려의 글로벌 성장에 박차를 가하며 최근에는 배우 공승연을 새로운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했다. 배우 공승연이 지닌 건강하고 윤기 있는 헤어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려가 추구하는 ‘근본 두피 케어를 통한 풍성한 아름다움’이라는 프리미엄 가치와 완벽히 부합한다는 평가다.

윤기 디자인 역시 과거 한방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자연 유래 성분과 고기능성을 강조하는 톤다운된 그린 색상과 현대적 그리드 레이아웃을 채택해 젊고 정교한 인상을 더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탈모는 진행 후 치료보다 초기 예방이 핵심인 만큼, 203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감성에 맞춘 세련된 디자인과 확실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글로벌 앰배서더 공승연과 함께 독보적인 한방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K-프리미엄 헤어 케어의 가치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아마모토 10K’ 다저스, NLDS 3차전 잡고 2승 1패...샌디에이고, 벼랑 끝 탈출
▲‘무단 이탈’ 호날두 입장문 발표 “감독이 약속 어겨...은퇴는 아냐”
/사진 뉴시스

▲‘축구의 신’ 메시, 아르헨 은퇴전서 1골 2도움... “한 시대가 막 내렸다”
▲‘국감 증인’ 박진영 “K-팝 한계 직면...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카카오엔터, 美 애틀랜틱과 맞손...글로벌 K팝 슈퍼 IP 캔다
▲문체위서 ‘암살자(들)’ 공방...與 “창작의 자유 억압” vs 野 “제작진 속삭해야”



핸드볼
권한나 선수

펜싱
송세라 선수

펜싱
오상욱 선수

핸드볼
박새영 선수

덕분에, 벅찼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 뜨거워했고, 함께 벅차했습니다

오랜 시간 선수들의 곁을 지켜온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Team Korea

SK telecom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통신 부문) 스폰서 SK텔레콤